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미전도 종족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음

정헌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contents

session 1: God's Kingdom	1
session 2: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15
session 3: 세계관과 선교	32
Lecture on Worldviews and Mission by Paul S. Chung PhD.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40
session 5: Sponsorship & Partnership Together	54
session 6: Team Work & Leadership	69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87

Copyright ©2019 by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CMCA)

All Rights Reserved

만약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의 교재 및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연락처:

Rev. Lordwin Lim, Director

Email: namca.allnations@gmail.com

[session 1: God's Kingdom]

1. 하나님의 말씀 :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모두 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위대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인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14)

열방: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족 그룹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목적

첫 언약: 창세기 12:1~3 과 갈라디아서 3:8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 하셨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놀라운 목적: 계시록 5:9~10

마지막 그림: 계시록 7:9~10

-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과 열정은 무엇인가?
-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격려를 주는가?



구약: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해 서술하고 있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고 그분의 마음이 항상 열방을 향하심을 나타낸다.

삼상 17:45~47, 왕상 8:41~43, 단 6:25~27, 시 67, 사 49:6 (눅2:25~32, 행 13:46~48)

신약 : 마 28:18~20 (막 16:15, 눅 24:45~47, 요 20:21, 행 1:8)

The Great Commission -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열정

사도행전 17:26~27 - 하나님의 사역과 뜻은 역사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하신다.

로마서 15:20~21 (이사야 52:15 인용)

삶에서 적용하기

- 이 과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세 구절을 암송하세요
- 성경에 나오는 선교의 사명을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의 세계: THUMB



지금 현재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음을 아는가?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회는 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예수 그리스도 -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종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며, 이 약속의 성취를 **계시록 7:9~10**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으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로 무엇이 남아 있는가?”

종족그룹 / 소수 종족그룹 : 언어, 종족, 종교, 문화, 역사 등의 장애가 없이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도 대상 그룹을 성경에서는 ‘종족’ 또는 ‘나라’라고 말한다.

전도된 종족 : 인구의 2% 이상이 복음주의 성도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할 수 있는 종족

미전도 종족 : 복음주의 성도가 인구의 2% 미만이어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

미접촉 (Unengaged) 종족 : 복음화 비율 0%로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나 교회도 없는 종족

10/40 창 :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북위 10/40도 지역을 10/40 창이라 부른다. 세계 인구의 67%, 빈곤층의 82%, 미전도 종족의 97%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29억명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으며 미전도 종족의 약 97%가 10/40 창에 살고 있다. 반면에 북남미 지역에는 미전도 종족의 1% 미만이 산다. 문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받느냐 않받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10/40 창 지역에는 무슬림 13억명, 힌두교인 8억6천만명, 불교인 2억7,500만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셨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 선교사의 10% 미만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나머지 90%는 이미 전도된 종족 집단에서 사역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미국에서 선교를 위해 할당된 돈 중에서 1달러당 2센트만이 미전도 지역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미 복음화된 종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THUMB : 미전도 종족의 종교

대부분의 세계 미전도 종족집단은 10/40창에 살고 있다. 미전도 종족의 주요 블록은 약어 THUMB로 쉽게 기억할 수 있다.

T Tribal (민속종교): 704종족 그룹에 1억6,100만명이 전도되지 못했으며 백만 명 당 60명의 타 문화권 사역자가 일한다. 민속종교인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중국, 남아시아와 파푸아뉴기니에 살고 있다.

민속종교의 신앙:

- 정령숭배와 미신을 믿는다. (물, 바위, 나무, 동물들 모든 것에는 영이 있다.)
- 이러한 영들을 노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희생제물로 잘 다스려야 한다.
- 자주 우상과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며 무당을 찾는다.

H Hindu(힌두교): 1,843 종족 그룹에 8억6000만명이 전도되지 못했으며 백만 명 당 2명의 타 문화권 사역자가 일한다. 대부분이 인도와 네팔에 거주한다.

힌두교인의 신앙:

- 수백만의 신들을 믿는다.
- 그들은 음식과 꽃, 돈을 바치며 우상에게 경배한다.
-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것, 즉 환생을 믿는다.



힌두이즘 OM

U Unreligious(무종교): 15종족 그룹에 1억 2100만명이 전도되지 못했으며, 백만 명당 12명의 타 문화권 사역자가 일한다. 무종교인의 대부분은 중국, 북한, 북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다.

무종교인의 신앙:

- 그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인데 그들은 신앙을 거절하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많은 공산국가에서 신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 무신론자의 대부분이 과거 200년동안 증가했다.

M Muslims(무슬림): 1,344 종족에 13억명이 전도되지 못하였으며 백만 명당 6명의 타문화권 사역자가 일한다. 무슬림의 대부분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

무슬림의 신앙:

- 오직 알라 한 신만 믿으며 무하마드는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다.
- 그들은 살아있을 때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 그들은 예수를 좋은 선지자로 존경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B Buddhist (불교): 227종족 그룹에 2억 7천 5백만명이 전도되지 못했으며 백만 명당 13명의 타 문화권 사역자가 일한다. 불교권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중국 과 일본에 살고 있다.

불교의 신앙:

-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 고통을 끝내기 위해 참선과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하여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최종의 목적은 고통이 끝나고 열반에 오르는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4:35 & 마태복음 9:37~38 (또한 누가복음 10:2 참고)

-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16~18, 데살로니가 후서 1:6~10, 로마서 6:23 & 요한복음 14:6

-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현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하박국 2:14 & 마태복음 24:14

- 미전도 종족에 관한 지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삶에서 적용하기

-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고 있는
joshuaproject.net
operationworld.org
peoplegroups.org
prayercast.com 같은 website를 살펴보라.
 특별히 joshuaproject.net/resource/prayer_videos 의 THUMB prayer video 를 보라
- 매일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식사 전이나 잠자기 전에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라. 10/40 창에 사는 종족들을 위해 아침 또는저녁 10시40분에 기도하라
- THUMB 에 관하여 3명의 친구들과 나누라

3.하나님 나라 일: 기도하기, 보내기, 환대하기, 나아가기, 동원하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진정 세상을 바꿀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1. 기도하기 (Praying)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 하시는 아바 아버지께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하도록 동원하는 자는 세계 복음화에 역사상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 앤드류 머레이 -

중보기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들을 대신하여 변호하고
 탄원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사역의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믿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말씀, 구절, 인용을 사용하며 기도했는가? 바울은 진정으로 중보자들이 그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나?

로마서 15:30~31, 고린도후서1:8~11, 에베소서 6:18~20, 빌립보서 1:19, 골로새서4:3~4 데살로니가후서 3:1~2

삶에서 적용하기

- 이웃으로 살고 있거나 해외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기 위한 기도를 매일 한다 : 더 많은 사역자가 타 문화권 사역 현장에 나아가도록, 더 많은 자원이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하고, 이 집단들 안에 있는 영적 장애물이 무너지도록 기도한다 **(누가복음 10:2, 에베소서 6:10)**
- 기도할 때 이 모든 자료를 구하고 사용하여 기도하라:
Global Prayer Digest, Joshua Project app, Prayercast.com videos, Operation World, Window on the World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의 지도와 사진과 정보를 모아라. 그리고 지도에서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지도를 펴라.”

- 윌리엄 캐리 -

2. 보내기 (sending)

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미전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는 10/40 창으로 가야 한다. 정말 그런가?

모두 다 갈 필요는 없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보내는 자(sender)는 떠나는 자(goer)만큼 중요하다.

보내는 자: 자신의 경력, 돈, 기술 및 영향력을 십분 활용하여 타문화권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사람들

로마서 10:14~15, 누가복음 8:1~3, 마태복음 9:37~38 과 로마서 15:30, 시편 24:1 과 역대상 29:14, 요한3서 5~8, 빌립보서 4:15~19, 고린도후서 9:6~12

삶에서 적용하기

- 매달 지출하는 “엑스트라” (외식이나 문화생활)에 사용되는 비용만큼 당신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또는 해외 타 문화권 사역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 후원하는 타 문화권 사역자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 하라
- 매달 타 문화권 사역자들에게 격려의 편지나 위로의 통화를 하라

3. 환대하기 (Welcoming)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도해 보라”
- 윌리엄 캐리 -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 전문직 사람들, 가정들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또는 다른나라)로 보내고 계신다. 많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며 많은 이들이 대학교 기숙사나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캐나다로 영구적으로 이주한 난민들로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국을 떠난 그들을 향해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길 원하시는지 볼 것이다.

환대하는 자 : 우리의 문화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환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외국인: 자신들의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학생들, 전문인들, 난민들과 가정들

외국 유학생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레위기 19:34 과 신명기 10:18~20

이 구절에서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열왕기 상 8:41~43, 이사야 56:6~7 과 마가복음 11:17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느끼실까? 우리는 외국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사람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단지 사역 대상으로 보는가?

사도행전 1:8, 8:27~31, 35~39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비춰볼 때 어떻게 해야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마가복음 5:14~20 과 요한복음 4:39~42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7~8

복음 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나누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 이것이 이곳에 사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삶에서 적용하기

어떻게 타 문화권 사람들을 환대하는자(Welcomer)로 섬기겠는가?

- 당신이 만나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라. (그들보다 당신이 더 어색할 것이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화를 물어 보라. 대화가 끝난 후에 더 많은 나눔을 갖기위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 보라. 그들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받는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 새로운 타민족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대학교 레크리에이션 공간, 타 민족 식당, 식품점에 가보라.
- 무엇을 하든 (세탁소, 쇼핑, 공부, 피크닉, 운동, 방학기간에 집으로 갈때) 당신의 새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하라.

4. 나아가기 (Going)

타문화권으로 가는 자 (Cross-Cultural Goer): 전혀 다른 타문화권 (타 종교권)인 먼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최전방으로 가는 자 (Frontier Goer):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토착종교를 믿는 종족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는 타 문화권 사역자

고린도 후서 5:18~20, 계시록 5:9 과 베드로 후서3:9, 로마서 15:19b~21, 10:13~15

삶에서 적용하기

-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있는 타 문화권 교회를 방문해보라
- 일년 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라
- 매일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위하여 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 주변에 타문화권에 사역을 하는 분 또는 했던 분(국내 또는 해외)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라

5. 동원하기 (Mobilizing)

동원가는 믿는자들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돕는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방을 복음화 시키시려는 목적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당신은 이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때이다.

동원가: 글로벌 비전, 열정 및 전략을 가지고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가장 전략적인 역할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동원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3가지: 동원가는 관계적이며 자원을 사용하며 겸손하다

마태복음 4:19, 고린도전서 11:1, 누가복음 24:45~48, 마태복음 9:36~38, 누가복음 10:1~2, 로마서 10:14~15, 계시록 5:9, 7:9~10

삶에서 적용하기

동원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일이지만 단순히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선교 활동에 참가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작할 수 있는 크리스찬 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성경공부, 중보 기도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기, 지역공동체나 소수 민족 교회 방문하기)
- 그 모임에 당신이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이 있나 살펴보라?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당신의 비전과 목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4. 지금 이곳에서 (Here & Now): 선교적 삶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 (3H)

머리 (Head): 성경적 선교 (하나님의 말씀) 와 성경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를 배우므로 어떤 지식, 이해와 확신이 들었는가?

마음 (Heart):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었는가?

손 (Hand): 배운 것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5가지 습관/ 행동: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

1. 기도하기: 타문화권 사역자와 열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방법을 작성하라.

2. 보내기: 타문화권 사역자를 보내는 일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들을 작성해보라. 물질로 도우는 방법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3. 환대하기: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거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작성해보라.

4. 나아가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타 문화권 사람들을 섬기거나 중장기선교사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르심을 누구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5. 동원하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로 확장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역을 위하여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라

Resources:

선교 동원 센터(Center for Mission Mobilization)

Mobilization.org, Weavefamily.org, CampusMinistry.org, SupportRaisingSolutions.org, CMMPress.org, Perspectives.org

통계및 자료(Statistics and Resources)

TheNations.us, ASkAMissionary.com, TheTravelingTeam.org, Joshuaproject.net, lie.org, Gideons.org, Wycliffe.org

기도 자원 (Prayer Resources)

OperationWorld.org, GlobalPrayerDigest.org, PrayerCast.com

책과 잡지(Books and Magazine)

CMMPress.org, MissionFrontier.org, MissionBooks.org

보충 자료 (Further resources)

Xpore, Second Edition, Eight imprint, 2016 (2판8쇄)

Go Mobilize, First Edition, Seventh Imprint, 2016 (1판7쇄)

Resources of the Centre for Mission Mobilization, Published by CMM Press

모자이크 선교를 나눌 요약된 창(Window)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1~3 시편 46:10 이사야 49:6 마태복음 28:19~20 계시록 7:9 5 선교에 대한 말씀 조사	하나님의 세계 40 T 민속종교권 H 힌두권 U 무신론권 M 무슬림권 B 불교권 5 THUMB 10
하나님의 일 기도하기 나아가기 보내기 환대하기 동원하기 5 가지 습관	지금 & 이곳에서 먼저 친구되기 세계관 및 선교 후원 및 동역하기 팀웍 및 리더쉽 네트워킹 5 가지 모자이크 선교 전략

기도 :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든,

멀리 우리의 모국이든 해외이든 어느 곳에 두시든지 당신이 보내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session 2: 모자이크 선교]

“불이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 에밀 부르너 -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가복음 4:26)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꿈

큰 동산이 있다. 이 동산 한 곳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와 아름다운 꽃 그리고 갖가지 곤충과 새가 어울려 살고 있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곳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살 수 없이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돌과 바위로 가득한 황무지화 된 곳이다. 이 동산의 주인이라면 생명력이 넘치는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도 황폐화 되어버린 죽어버린 땅을 보면서 이 불모지를 나무와 꽃이 자라고 물이 흐르는 옥토가 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 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황무지 위로 연약한 한 싹이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 동산 주인이 보았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 죽든지 살든지 그 싹을 그대로 방치해 둘까? 아니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싹이 자라게 된 땅의 형편을 살피면서 더욱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뿌려주며 해충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도록 노력할까? 당연히 이 싹이 잘 자라서 꽃과 열매 그리고 새와 짐승들이 어울려 사는 풍요로운 동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러한 일이 지금 global 시대를 맞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종교적, 정치적, 지리적 이유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영적 황무지였던 지역에서 살던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민, 취업, 난민 그리고 유학, 여행 등으로 불러와 우리 이웃으로 살게 하셨다. 그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핍박을 피해온 형제 자매, 또는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작은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다.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던 황무지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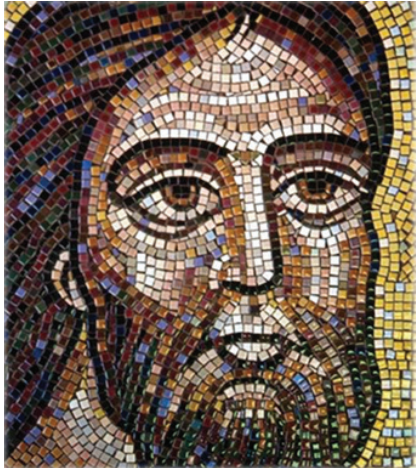
황무지에 싹을 내는 종족들의 교회의 꽃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비전

이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생명의 싹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담장을 넘어 그들에게로 다가가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자라게 해서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싹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강건한 나무로 자라도록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다

1. CMCA 모자이크 선교(Mosaic Cultural Ministry)

1.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정의



예수님의 모자이크 이미지와 모자이크 개념으로 알파벳을 형상화한 CMCA logo)

‘모자이크 선교’라는 이름은 여러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상하는 모자이크 예술 작품과 global 시대를 맞아 많은 종족들이 자기 언어 문화를 속에서 함께 평화롭게 생활하는 모자이크 사회 (mosaic society)에서 영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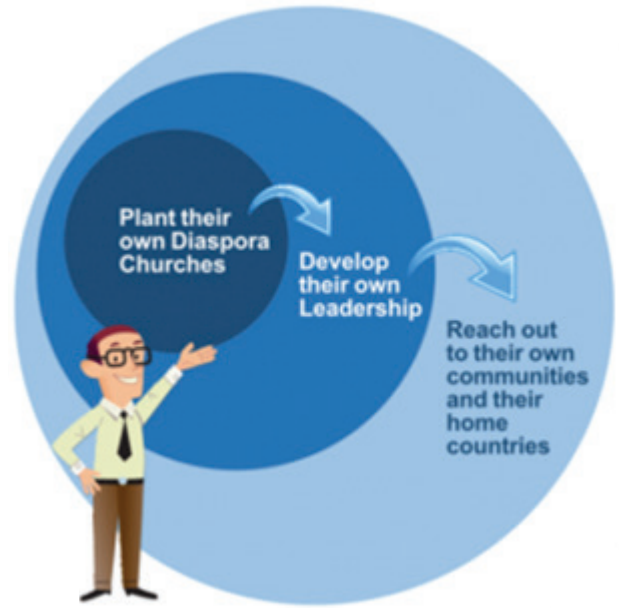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여러 종족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 문화, 전통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각의 모자이크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다른 모자이크인 타 문화권 종족들과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계시록7:9)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자이크 선교이다.

그래서 모자이크 선교는 모든 언어와 문화를 한 지배적인 언어와 문화로 동화된 교회를 세우려는 선교 모델과는 대조를 이루며 또한 개별 지역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이 타 문화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육하며 동역하기 때문에 선교단체나 교단 본부 중심 또는 주류 교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선교 사역과도 구별된다.

2. CMCA와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비전



열방을 우리 곁으로 불러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CMCA 모자이크 선교 비전

하나님께서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이민, 난민, 취업, 유학, 여행 등으로 우리 곁으로 불러와 이웃으로 살게 하신 미전도 종족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각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의 Networking과 Partnership을 통하여...

-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고 그들이 영적, 재정적 그리고 숫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
- 이민 디아스포라 타문화권 교회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돕는다.
- 세워진 타 문화권 교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자기 종족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 동포와 국내외 다른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한다.

3.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의 목적

CMCA 비전의 실현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to the Diasporas)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 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through the Diasporas), 자기 모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 문화권 종족들에 (beyond the Diasporas)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4.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의 우선 순위

- 우리가 원하는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미전도 종족 교회를 개척한다.
-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사역을 한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섬긴다
-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섬긴다

5.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 Multicultural Ministry 차이

■ Mosaic Cultural Ministry : 종족, 문화, 언어별 리더십과 동역하는 다민족 사역

- 원심력 (Centrifugal) : 중심에서 밖으로 향하는 사역
- 흩어지는 (원심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후 사도를 제외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끼리’ 울타리를 넘어서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이다.
- 모국의 문화, 언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2세들의 모국 선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

■ Multicultural Ministry : 한 언어, 문화, 단일 리더십 중심의 다민족 사역

- 구심력 (Centripetal) : 중심으로 향하는 중앙 집중적 사역
- 중앙 집중적 (구심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전 처럼 ‘우리끼리’ 은혜받고 교제하고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 오늘날 주류 교회의 Multicultural Ministry라고 하는 사역은 Multi-ethnic Ministry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서구 주류 교회들 (large mainstream churches)에서 보통 볼 수 있는 multicultural ministry (multi-ethnic ministry)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어와 서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종족들에게는 모자이크 선교(mosaic cultural ministry)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Mosaic Cultural Festival에서 미얀마 전통 춤 모습



Mosaic Cultural Festival에서 파키스탄 전통 결혼 모습

6. CMCA 모자이크 선교 전략

■ Standing with the marginalized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긴다

■ Mission of Understanding

선교 대상 종족의 세계관,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 Networking Mission

교회, 선교단체, 성도들간 동역을 통해 영적 자원을 극대화한다

■ Friendship Mission

개종 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친구가 된다

■ Partnership Mission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동역한다

■ Sponsorship Mission

부모와 농부의 마음으로 받은 복을 흘려보낸다

■ Teamwork and Leadership

팀 사역을 할 때 기러기에서 배울 것이 많다

2. 교회 선교 시대 (Mission Eras)

초대 교회 (Early Church): 안디옥 교회, 로마교회, 바울과 바나바 이방 선교

초기 100~300년: 로마제국, 북아프리카, 중동에 복음이 전해졌다

카톨릭 교회의 선교 시대 (중세 300~1500년)

300-600: 수도회 중심으로 영국제도, 아일랜드 (St. Patrick), 독일, 북유럽 선교
(Monastery order - British Isles, Ireland (St. Patrick), Germany, Northern Europe)

600-1000: 바이킹으로 포로로 잡혀간 Christians들이 바이킹과 북유럽 복음화
(Captives to Vikings evangelize Vikings and north Europe)

1000-1500: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과 갈등 속에 있었으나 동시에 St. Thomas Aquinas (저서: 불신자를 위하여, 신학대전), St. Francis (무슬림 지도자와 대화,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통해서라도') 등은 선교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비로 가득한 사람,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1500-1800: 기독교의 지리적 확장의 주요 세력은 로마 카톨릭 교회 수도원 운동 (프란치스칸, 도미니칸...)과 예수회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설립, 마태오 리치 중국 선교 ...) 등의 수도사들이 교회 개혁과 선교의 중요한 역할 수행 하였다.

개신교 선교 시대 (Mission Eras)

연안 지역 선교 시대 (1792~1910):

William Carey (1761~1834)의 인도 선교로부터 시작

내륙 지역 선교 시대 (1865~1980):

Hudson Taylor (1832~1905)의 중국 내지 선교로부터 시작

숨겨진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1934~현재):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 모자이크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음)



개신교 선교 시대

성경적 Diaspora 평신도 선교의 중요성 (Local migrant lay missions in the Bible)

안디옥 교회 (Church at Antioch)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로 촉발된 핍박을 피해 흩어지기 시작한 성도들에 **(사도행전 8:1)** 의해 설립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된 교회이다. 이 교회의 리더들은 **(사도행전 13:1)** 평신도들이었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사도 중심의 리더십에 의한 교회였던 것과는 달리 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의 시작이 디아스포라 평신도였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마 교회 (The Church at Rome)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다. 이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사도행전 2:5-11) 스테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안디옥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웠을 수도 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2) 부부가 이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였으리라 추정된다.

이와같이 초대 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디아스포라 선교와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초대 교회, 카톨릭 세계 선교 그리고 개신교 선교 역사를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불러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우리 이웃으로 살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참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주창하여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에서부터 디아스포라 선교학이 삶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선교학으로 발전한다. 이후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31개 항목의 중요한 선교 영역을 설정했고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진지한 토의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6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자, 어린이, 타종교인 등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로마서 1:16 -

3. 왜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를 해야 하는가?

1. 모자이크 선교는 선교에 대한 장애물과 고정 관념을 제거한다

-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종족을 우리의 이웃으로 살게 하셨다
- 다른 종교, 문화권 종족들과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다
- 선교는 소명을 받은 자가 모든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우리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타 문화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 선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타문화권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 친구가 될 때 해소된다
-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부담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

2. 모자이크 선교는 선교적 삶 (HERE & NOW)을 살게 한다

- 매일의 삶 속에서 모자이크 선교를 할 수 있다.
global 시대가 된 오늘 날 이민, 난민, 취업, 유학, 여행등으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타 문화권 사람들을 우리 일상 생활에 초청하여 함께 함으로써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
- 모자이크 선교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한다.
우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예배, 교육, 친교, 봉사 활동에서 타 문화권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할 때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된다.
- 모자이크 선교를 통해 여러 사역 분야 (Praying, Sending, Going, Mobilizing, Welcoming)에서 동시에 섬길 수 있다.

3. 모자이크 선교는 디아스포라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 한다

초대 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듯이 오늘 날도 모자이크 선교를 통해 세계로 도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 모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4. 모자이크 선교는 Networking과 동역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 모자이크 선교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모자이크 선교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성취해 가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배우 (주연, 조연, 단역, 스타트...)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또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 성도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동역해야 한다.
- 모자이크 선교는 필요를 찾아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동역자들의 자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야 한다.
- 모자이크 선교는 전문성, 지속성, 연속성, 상호 보완성이 있다
가정, 직장 그리고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에 동역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전문성 (사업, 의사, 변호사, social workers, 교사, 음악, 미술, 운전, 요리, 전기, 배관, 목공, 경비행기 조종사, 아마추어 무선사...), 은사, 경험, 열정을 타 문화권 사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동역함으로써 상호 보완할 수 있다.

5. 모자이크 선교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선교 효과를 낼 수 있다

-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터전에서 선교함으로써 영적, 인적, 시간, 재정적 필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CMCA와 각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의 자원을 소수 민족들의 교회 개척, 리더십 개발, 선교 활동, 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모자이크 선교는 해외 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를 연결 시킨다



캐나다에 처음으로 세워진 토론토 태국 교회와 이 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나간
Pastor Sue & Frank가 개척한 태국 현지 교회 (Peace Gospel Church)

해외 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선교적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모자이크 선교를 통해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7. 모자이크 선교는 관계 중심적이며 장기적인 사역이다

단기 선교는 기간 및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에 기획, 준비, 시행하는 이벤트화 된 사역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사역에 따른 결과, 성취감이 있다. 그러나 매일 선교적 삶을 사는 모자이크 선교는 관계 중심적이고 장기간 사역해야 함으로 단기간에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성급함을 극복한다면 타 문화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8. 모자이크 선교는 디아스포라 차세대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소수 민족 청소년 ALPHA Camp

모자이크 선교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양육된 디아스포라 2세대들은 영어 뿐만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강점이 있다.

9. 쇠퇴해 가는 Mainstream church의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된다

모자이크 선교를 통한 소수 민족 교회의 부흥이 쇠퇴하는 Mainstream Church들에게 부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이 모자이크 선교를 통해 우리는 **행 1:8**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적 삶 (HERE & NOW)을 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4. 어떻게 모자이크 선교를 시작할 수 있나?

Survey를 통해 소수 민족 선교에 관련된 자료, 정보를 조사한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사도행전 17:22) 우리는 조심스러운 관찰자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교회, 직장, 학교 부근에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며 (Demographic Survey, Interview with Ethnic Groups, Statistics Canada)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비전 나눔과 동원

- 교회 리더십이 모자이크 선교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종족을 위해 기도한다.
- 교회는 중보 기도팀, 및 사역팀을 구성하며 이를 이끌 지도자를 세운다.
-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한 성도는 주변의 친구, 이웃과 비전을 나누며 그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동원한다.

타 문화권 종족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한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 관습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 사역이다.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

난민, 취업, 이민, 유학등으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물질적인 필요가 더 긴급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진실되게 전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육체적 필요를 제공하느라 영적 구원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할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서도 안된다. 비록 어렵지만 이 두 관점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사람들의 어느 필요도 등한시 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직하고 오직 재정적 도움만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에는 소수 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나 사람들과 동역할 때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과도한 지원은 그들을 독립적이고 자치적이 되도록 하기 보다 오히려 재정과 영적으로 의존적인 교회나 공동체가 되도록 조장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지혜롭게 영적 분변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기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리더와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라크 난민으로 캐나다에 온 pastor Ihsan Jaro 가족을 통하여 아랍 교회, Holy Spirit Church, 를 개척하였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종족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할 신실한 지도자와 성도 그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영적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여 그들의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그들의 모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타문화권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세워야 한다.

복음을 전할 종족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다리를 세워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적, 문화적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받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자이크 선교는 창의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나 경험만을 주장해서는 않된다. 전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모자이크 선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 곁에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끼리만 어울려 살던 장벽을
깨고 타 문화권 이웃과 함께 하는 모습**

종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종교는 대다수의 소수 민족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를 특히 무시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듯이 그들도 그러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믿음에 동의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또는 믿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왜 우리 이웃들이 그들의 종교를 믿고 그 교리들을 따르는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인 때가 있다

이민, 난민, 취업등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첫 6개월이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이 우리 곁으로 와서 생활하기 시작한 후 도움이 가장 필요한 6개월 이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것은 만약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늦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들을 환영할 좋은 기회를 잃는 것이다.

기도와 교제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야 한다



소수 민족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습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와 교제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며 격려해야 한다.

삶에서 적용하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서 한가지씩 실천하며 살자.
(캐나다 타 문화권 선교 사역을 하는 사역자나 교회를 후원하거나 타 문화권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 교제를 시작하자.)

**기도: 주님, 우리 곁으로 불러와 이웃으로 살게 하신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고: CMCA Web Site: <http://www.cmcaallnations.org>

각종교별 명절 달력 (Religious Holidays 2018 Revised)

Islam: Shi-'ah <i>Note: Muslim holidays based on Lunar Calendar and observances may vary by a day before or after from dates given, depending on the community. Every Friday 12:15 – 2 pm-Congregation Prayers</i>	Mawlid Iman Zamana	May 1, 2018
	Martyrdom of Iman Ali	June 5, 2018
	Laylatul Qadr (3 days)	June 3, 5 & 7, 2018
	Jumatul-Wida	June 8, 2018
	Eid-ul-Fitr (1 st day after Ramadhan)	June 15, 2018
	Day of Hajj (Day at Arafat)	August 21, 2018
	Eid-ul-Adha	August 22, 2018
	Eid-e-Ghadir	August 30, 2018
	First of Muharram (New Year's Day)	September 11, 2018
	Ashura (10 th Muharram)	September 20, 2018
	Arbaeen (40 th Day after Imam Hussain's Martyrdom)	October 30, 2018
	Mawlid un-Nabi	December 6, 2018
Islam: Sunni <i>Note: Muslim holidays based on Lunar Calendar and observances may vary by a day before or after from dates given, depending on the community. Every Friday 12:15 – 2 pm-Congregation Prayers</i> Please note that the dates provided are tentative and will be confirmed as per Saudi's decision	Fasting Begins – 1 st day of Ramadan	May 16, 2018
	Eid-ul-Fitr (one day at the end of Ramadan – date subject to moon sighting)	June 15, 2018
	Eid-ul-Adha	August 21, 2018

Jewish: Conservative <i>Note: Sabbath Starts Friday Sundown. All holy days start sundown the night preceding the holiday</i>	Pesach/Passover (1 st , 2 nd , 7 th , 8 th Days)	March 31, April 1, 6 & 7, 2018
	Shavuot/Pentecost (2 days)	May 20 & 21, 2018
	Rosh Hashanah / New Year (2 days)	September 10 & 11, 2018
	Yom Kippur / Day of Atonement (1 day)	September 19, 2018
	Sukkot - Tabernacles 1 st , 2 nd , 8 th , 9 th Days	September 24 & 25, October 1 & 2, 2018

Sikh	Birthday of Guru Gobind Singh	January 5, 2018
	Maghi to commemorate Martyrdom of Forty Sikhs in Battle at Mukatsar.	January 14, 2018
	Bandi Chhord Day	February 12, 2018
	Nanakshahi New Year Day & Hola Mohalla	March 14, 2018
	Vaisakhi Khalsa Day & also Parkash (Birthday) of Guru Nanak Dev Sahib	*April 14, 2018
	Martyrdom of Guru Arjan Dev	June 16, 2018
	Parkash day of Sri Guru Granth Sahib at Darbar Sahib, Amritsar in 1604	September 1, 2018
	Gur Gadee (Bestowing of Guru Ship on Holy Scriptures as Guru Granth Sahib)	October 20, 2018
	Martyrdom of Guru Tegh Bahadur Sahib and his Sikhs Bhai Mati Das; Bhai Sati Das, and Bhai Dyala Ji	November 24, 2018
	Martyrdom Sahibzada Ajit Singh & Jujhar Singh	December 21, 2018
	Martyrdom Sahibzada Fatch Singh & Zorawar Singh & Mata (Mother)	December 26, 2018

Zoroastrian <i>Note: Nowruz occurs on one day between the 19th and 22nd, traditionally it is listed as the 21st but it can be celebrated on one of the other days instead.</i> <i>Note: Dates will change as Zoroastrians follow a 365-day calendar without leap year day.</i> (F) Fasli – Seasonal (S) Shenshahi – Royal	Jashn-E-Sadeh (F)	January 27, 2018
	Nowruz (F)	March 21, 2018
	Birthday of Prophet Ashu Zarthusht (F)	March 26, 2018
	Fravardigan (F)	April 8, 2018
	Death Anniversary of Prophet Ashu Zarthusht (S)	May 24, 2018
	Norooz (New Year) (S)	August 17, 2018
	Birthday of Prophet Ashu Zarathushtra (S)	August 22, 2018
	Farvardigan (S)	September 4, 2018
	Mehregan (F)	September 29, 2018
	Death Anniversary of Prophet Ashu Zarathushtra (F)	December 26, 2018

Buddhist (Mahayana) Cham Shan Temple, Thornhill	Buddha's Enlightenment (Mahayana)	January 24, 2018
	Lunar New Year (World Peace Prayer Service)/Chinese New Year	February 16, 2018
	Buddha's Parinirvana/Buddha's Great Renunciation	March 31, 2018
	Buddha's Birthday (Wesak)	May 22, 2018
	Ullambana (Ancestor's Day)	August 25, 2018
Buddhist (Mahayana) Zen Buddhist Temple, Toronto <i>Note: In the Western world, some festivals may be celebrated on the Sunday nearest the actual date.</i>	Buddha's Enlightenment (Mahayana)	January 24, 2018
	Lunar New Year(World Peace Prayer Service)/Chinese New Year	February 16, 2018
	Buddha's Parinirvana	March 31, 2018
	Buddha's Birthday (Wesak)	May 22, 2018
	Ullambana (Ancestor's Day)	August 25, 2018
Buddhist (Riwoche Tibet)	Tibetan's New Year (Losar)	February 16, 2018
	Day of Offering (Chotrul Duchen - 1 st full moon day of Tibetan New Year)	TBC
	Tibetan's Buddha's Birth (Wesak)	May 29, 2018
	Tibetan's Buddha's Enlightenment (Saka Dawa)	May 16 - June 13, 2018
	Tibetan's Buddha's Death (Pari Nirvana)	May 29, 2018
	His Holiness the Dalai Lama's Birthday*	*July 6, 2018
	Choe-kor Due-chen (1st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July 16, 2018
	Lhabab Duche	October 31, 2018
Buddhist (Theravada)	Temple Day (Canada)	January 1, 2018
	Shaka Day (New Year's Day)	April 14, 2018
	Buddha's Birth, Enlightenment and Demise Anniversary (Full Moon Day)	May 29, 2018

[session 3: 세계관과 선교]

Lecture on Worldviews and Mission by Paul S. Chung PhD.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세계관에 관한 사례:

1. 인도 과학자와 의사들이 갠지즈강의 수질오염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데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것은 갠지즈강의 성스러운 물은 오염되지 않는다고 믿는 (some) 인도 국민의 세계관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말하는 “오염”과 갠지즈강이 갖는 종교적 의미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2. 오래전에 세계의 특정 지역의 여학교의 (set up by foreign missionaries and aid workers) 학생수가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 설립자들이 그 지역 국민의 교육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인간의 행동과 문화의 기저에 놓여있다.

세계관 → 가치관 → 문화 → 제도와 관습 → 행동

그러므로, 세계관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전제조건 (예, 가정)의 집합”

- James Si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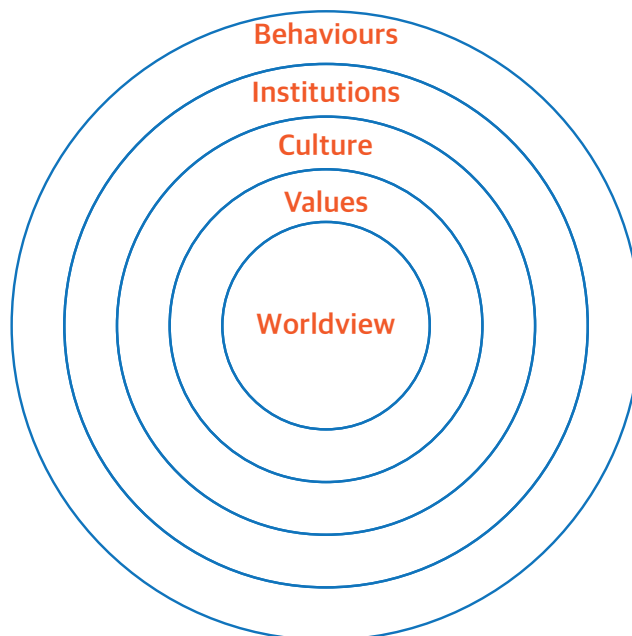
“...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상의 모델”

- Walsh and Middleton -

세계관은 신념보다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Ninian Smart 은 세계관을 “7개의 차원”으로 구별했다.

1. 신념 (신조/철학)
2. 구전과 신화
3. 윤리와 법
4. 의례와 의식
5. 경험과 감정
6. 사회제도와 사고
7. 물체 (상징적인 대상 또는 장소)



세계관의 특성: 세계관은 ...

1. ... 이야기 (모든 것이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이야기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

1.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2. 이 세상의 본성은 무엇인가?
3. 인간이란 무엇인가?
4.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수 있는가?
6.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가?
7. 역사란 무엇인가? (James Sire)

또는 더 단순화하면,

1. 나는 누구인가?
2. 나는 어디에 있는가?
3. 무엇이 나의 삶의 문제인가?
4.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Walsh and Middleton)

2. ...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루는 배경이 세계관으로부터 온다

세계관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형성하는 틀로 작용한다

1. 다른 사실, 경험, 직관 등을 일관성 있는 전체로 편입시킨다.
2. 새로운 경험 등을 일관성 있는 전체로 편입시킨다.

세계관은 당신이 “보는” 것 (개인적, 공동체적, 역사적) 에 의해 형성된다.

1. 당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결론에 이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2. 그리고 반대로 세계관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한다.



예) 백호가 사는 숲

세계관에 따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1. 신비롭고, 성스러운 동물과 영적으로 의미있는 장소, 경외감?
2. 야생에 있는 위험한 야수? 위험 또는 공포감?
3. 사라질 위험에 있는 숲에 사는 멸종위기에 놓인, 보호가 필요한 종? 슬픔과 상실감?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3. ...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념들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형성한다. (예: 기독교인에게 있어, 창조에 대한 신념은 과학, 성경과 성경말씀에 대한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

상호연결된 체계 안에서 어떤 신념들은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한다.

- A. 핵심 신념들
- B. 부수적인 신념들
- C. 주변의 “사실들”

4. ... 포괄적인

세계관은

- A. 모든 지적 영역을 규정짓는다
- B. 삶의 모든 면을 인도한다
- C. 예술을 통하여 표현된다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가?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왜...

1.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2. 그들이 믿는 것을 믿는지
 3. 그들의 문제가 실제로 무엇인지 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사례

화평의 아이 (Peace Child)

- 돈 리처드슨-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돈 리처드슨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뉴기니의 사위족의 세계관 사이에 놓인 커다란 차이를 절감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아니라 유다가 복음의 영웅이었다, 예수는 단지 조롱감이었을 뿐이다." 결국 리처드슨은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분명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 비유를 발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사위족의 ‘화평의 아이’라는 개념이었다.” (Ruth A. Tucker, Missionary Historian)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서로 다른 세계관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 >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념들이 다르다
- > 전체에 대한 이견

차이점

1. ... 실체를 중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이 다르다 (같은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진다)
2. ...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와 기준 (동일한 사실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신념의 틀”이 다르다는 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
2. 경험과 사실 등이 어떻게 전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차이

이러한 차이는 다른 세계관에 대해 호전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 호전적 차이의 개념 -> 2. 이해하지 못함 -> 3. 잘못되고 호전적인 이해 ->
4. 상대방에 대한 호전적인 반응 -> 5. 상대방도 호전적으로 반응한다 ->
6. 상대방은 “사악한” 또는 “어리석은” 등으로 판단 -> 7. #1로 돌아가는 악순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의 신념에 관해 대화할 수 있을까?

어려움: 상대주의

사람들의 신념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해결책 1: 실체와 진리

과학, 이성, 경험 등은 우리의 신념과 상관없이 사물은 진리라고 보여준다.

문제점: 그러나, 대부분의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관들은 서로 자기네 신념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해 자신이 믿는 진리를 어떻게 변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해결책 2: 공통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성, 과학같은 것처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들

문제점: 공통점은 충분하지 않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관에 다르게 포함된다거나 받아지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례: Dylan Evans vs Justin L. Barrett

무신론자와 기독교인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일정 부분 과학적인 이론에 동의하고 있다. (빅뱅, 진화론, 원자이론 등) 그러나 한 사람은 신을 믿는다.

두 사람은 인지 심리학으로 (cognitive science)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Barrett은 HADD (Hyperactive Agency Detection Device)를 개발한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레 신을 찾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같은 HADD 이론으로 Evans는 신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책 3: 논리적 일관성과 시간적 일관성

다른 세계관은 그 자신의 논리에 의해 설득력이 있는가? 다른 세계관은 논리적 일관성과 시간적 일관성이 있는가?

문제점: 각각의 세계관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관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핵심 신념, 보조 신념 그리고 주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신념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고도, 신념에 어떤 착오나 문제점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설득시킬 수 있나

질문: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옹호자와 신학자는 누구를 들 수 있는가?

St. Augustine, C.S. Lewis, or Alister McGrath 등

이 세 사람은 비기독교인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열쇠는 어떻게 그들이 개종하게 (믿게) 되었는가에 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개종자는 사도 바울이다.

1.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22:1-21)

2. 아테네에서의 설교 (사도행전 17:16-34)

개종 이야기

1. 내가 믿고 있던 것을 왜 믿고 있었는지
2.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하였는지
3. 왜 나는 지금 내가 믿는 것을 믿는지

“나는 과거에 믿는 것 중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부족 했는지 깨달았다”

과거에 다른 세계관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개종한 사람들 이 위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세계관의 전환

… 내가 다른 세계관을 믿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그러한 다른 세계관, 신념을 갖고 그것을 진지하고 깊게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종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다. (사도 바울의 예에서)

1. 다른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A)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B)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여정을 이야기 한다.
2.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여정에 커다란 의미와 이해가 주어지는 개종 이야기를 한다.

의미

CMCA가 소수민족 커뮤니티 지도자와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소수민족 커뮤니티 지도자와 교회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자신과, 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자기 종족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의미있게 다가오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1. ... 말하기 전에 들어라
2. ... 가르치기 전에 배워라
3. ... 전도하기 전에 관계를 맺어라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 누가복음 16:9-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 (11절의 ‘참된 것’과 대칭) 을 지혜롭게 사용하였다고 칭찬하는 주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이 맡긴 재물로 자기를 위해
- 주인에게 빛진 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며 - 친구를 사귀면서 앞날을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한 성도로 살지 말고 -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십자가 사랑, 구원, 부활, 영생)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하시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하신다.

즉 세상 재물로 친구 사귀기를 아까워한다면 - 충성하지 않는다면 -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것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 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 친구로 사귀어 - 주께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기독교인을 경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종교와 무신론자들과 기독교에 적대하는 세력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 (십자가 사랑, 부활, 믿음, 재물, 시간, 재능, 은사, 건강 등) 을 우리 (나, 가족, 우리 공동체) 만을 위해서 사용할뿐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타 문화권 이웃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상처주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을 적대하는 대상이 되게 만든 우리들의 지혜롭지 못한 -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 과거의 삶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반응들)을 회개하며 자기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던 불의한 청지기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하겠다.

1.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

	2011 년	2036 년
이민자/캐나다 총인구 - 이민자/도시별 총인구	41.1% (2016)	Toronto: 46%~52.8% Vancouver: 42.1%~48.5% Calgary: 32.7%~40.8% Montreal: 28.4%~34.2% Winnipeg: 29.2%~40.5%
외국 출생 이민자/총인구 외국 출생 및 자녀/총 인구 - 도시별 총인구 대비	20.7% 38.2%	24.5%~30% 44.2%~49.7% Toronto: 77%~81.4% Vancouver: 69.4%~74%
도시 거주/총 이민자 - 도시별 거주/총 이민자	90%	91.7%~93.4% Toronto: 33.6%~39.1% Montreal: 13.9~14.6% Vancouver: 12.4%~13.1%
아시아 출생/총 이민자 중동 출생 포함 유럽 출생/총 이민자	44.8% 70% (2016) 31.6%	55.7%~57.9% 15.4%~17.8%
비 기독교인/총 인구 종교별 인구/총 인구	9%	13~16% Muslim: 5.6%~7.2% Hindu: 2.5%~2.9% Sikh: 2.3%~2.7%
캐나다 언어 영어 사용 인구 불어 사용 인구 영어 아닌 모국어 사용	200 여 언어 58.7% 21.3% 20%	52%~56% 17%~18% 26.1%~30.6%
캐나다 총 인구 (2018) 캐나다 거주 종족 (2018)	36,963,854 273 종족	

Sources: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70125/dq170125b-eng.htm>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답게 273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미전도 종족만 50종족에 이르고 있다. (source: Joshua Project) 2036년에는 2세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91.7%~93.4%)이 도시에 살며 토론토, 벤쿠버 등 대도시에는 이들 중 44.2%~49.7%가 집중되어 살게 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교는 대상자들을 향하여 가는 ‘해외 선교’였다면 이제는 Global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민, 유학, 취업, 난민, 여행 등으로 우리 곁으로 불러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국내 선교’도 가능한 시대다.

‘여기서 지금’ (HERE & NOW) 선교할 수 있다



네팔 친구들과 함께



네팔 공동체 연합 성탄절 예배와 교제

선교는 중, 장기로 헌신하는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이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민, 유학, 취업, 이민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 온 타 문화권 사람들을 매일 삶의 터전에서 만나고 있지만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한다고 알고 있어도 우리끼리만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담장을 넘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

모자이크 선교 훈련은 이러한 선교에 대한 편견과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거나 피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서 지금 (HERE & NOW)’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her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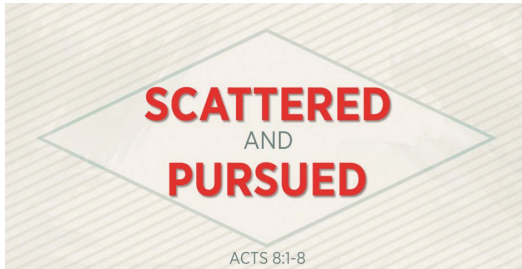
2. 우리끼리만의 담장을 뛰어넘어 먼저 친구가 되자

먼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기도 전에 사역하려는 것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라크 난민 Ihsan Jaro와 친구되어 아랍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The Springtime of My Life has come:

<http://www.cmcaallnations.org/our-stories/>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사도행전 8:1 -**

‘사도 외에는 다’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전문적인 직무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나가야 하는 보여 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도 이민, 난민, 유학 그리고 취업 등으로 우리 곁에 온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당황스러운 일이 많으며, 우리는 함께 어울릴 친구나 이웃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끼리만 만나고 즐기던 삶을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위해 수고하며, 이웃과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타 문화권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자.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12 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쏟으셨다. 우리도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처럼 되고 그들 곁에 함께 있으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는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골로새서 3:17 -**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 - 이웃을 사랑하자



CMCA

PAGE 5

세상 모든 종족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웃의 친구는 될 수 있다

타문화권 종족들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타 문화권 이웃과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Sue & Frank와 친구가 되어 태국 교회를 세운 이야기 (Tears turned to Songs)

<http://www.cmcaallnations.org/our-stories/>

- 하나님께 친구로 사귄 타 문화권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타 문화권 이웃, 동료, 고객을 만난 전후 또 만남 중에도 계속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를 알려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 개종 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다.
- 그들의 종교와 영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존중하며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2.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자

고향을 떠나온 타문화권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에 목말라 있으므로 그들을 존중하며 서로 친구가 될 때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며 이 때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 그들의 생일 및 경조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 운동, 산책, 음악, 영화 등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행한다.
-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 최근 이민 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그들이 좋아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겸손히 인정하고 사랑한다.
-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문화적으로 실수를 해도 우리를 받아준다.
- 우리가 그들을 알고 존중하면 문화적 실수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우리의 문화적 뿌리가 Christian과 서양인들의 문화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대화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각 종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 모습

3.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나누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 사도행전 2:44-47 -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 타문화권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
- 세상의 재정 원칙은 사고 파는 것이지만 성도의 재정 원칙은 거저 주고 받는 관대함이다.
- 주 안에서 베푸는 관대함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빛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한다.
- 서로 관대함으로 베풀며 살 때 베푸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

“...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 고린도후서 8:3~4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시편 37:25~26 -

4. 타 문화권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들과
타문화권 성도들과 연합 피크닉

타문화권 이웃과 음식 교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계시록 3:20 -

차, 커피,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손을 사용하시어 타문화권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문을 열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 우리끼리만 마시던 차와 커피를 타문화권 친구와도 함께 마시자.
- 우리끼리 축하하고 즐기던 생일, 가족 또는 교회 모임에 그들을 초청하며 우리도 그들의 행사에도 즐거이 참석하자.
- 새해,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자.
- 우리 음식 요리법 (김치, 불고기 등)을 나누고 그들의 요리도 함께 배우며 교제하자.
- 피크닉,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교제의 폭을 넓혀가자.

5. 주 안에서 타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자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 잠언 20:5 -

- 잘 듣는 것이 우정의 시작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상대방 이야기 중에 끼어들어 상대방의 생각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경계심이 없도록 편하게 일상 생활 이야기 (날씨, 스포츠, 음식, 언어 등)를 나누자.

-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한달에 한두번은 만날 기회를 만들자.
- 자주 만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자.
- 자녀들의 부모와 만나 자녀 양육에 대해 대화하며 교제하자.
- 시간이 흐르면 이민, 직업, 관심사, 가족 이야기 등으로 친밀함을 높이자.
- 경청하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사랑을 마음과 몸으로 표현해 보자.
-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어 때문에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품어주며 그들의 인사말과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며 이야기해 보자.
- 서로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나누자.
- 서양 및 기독교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간증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잠언 18:13 -

3. 문화의 민감성을 기르는 9가지 단계



CMCA 문화 축제 참가 종족 단체 사진



문화 축제 참가 종족별 문화 전시 부스

디아스포라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1. 언어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타 문화권 종족들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존경심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 땅에 와서 문화적 충격과 그들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로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소유한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
3.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여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4. 그들의 모국에 대한 자존심과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5.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6. 영어를 잘 하는 분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잘 못한다면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이민자로서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7.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8.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9.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며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

4. 유학생 및 청소년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77%가 21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 (2004년 Bana Group Study)가 있는데 이는 열린 마음으로 있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원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미 유학생들과 Cambodia 독재자 Pol Pot

Pol Pot 이야기:

캄보디아의 독재자 Pol Pot는 정치적인 이유로 250여 만명의 자기 동족을 학살, 기아 등으로 죽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잔학한 비극을 주도한 Pol Pot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때 프랑스의 한 성도라도 그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캄보디아의 killing fields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Pol Pot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미래를 이끌어갈 유학생 또는 이민 온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 지도자를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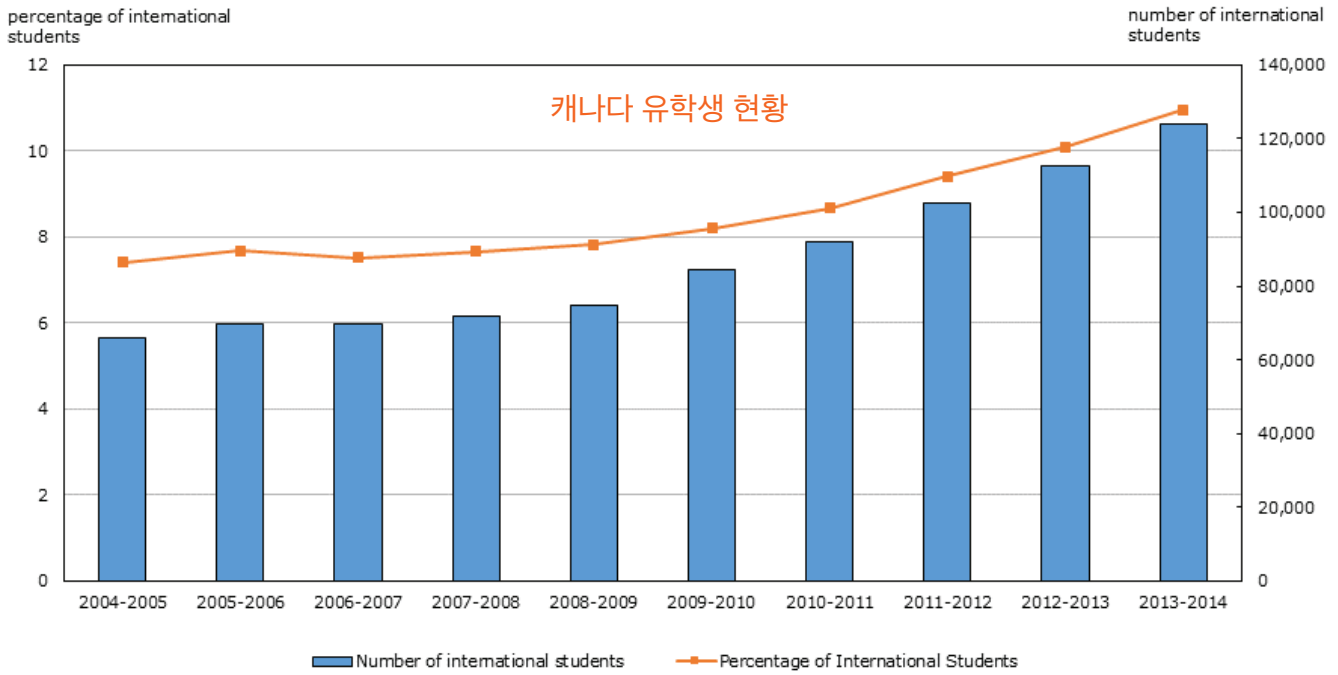
학교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모판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언젠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 가정을 복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 그들은 복음에 가장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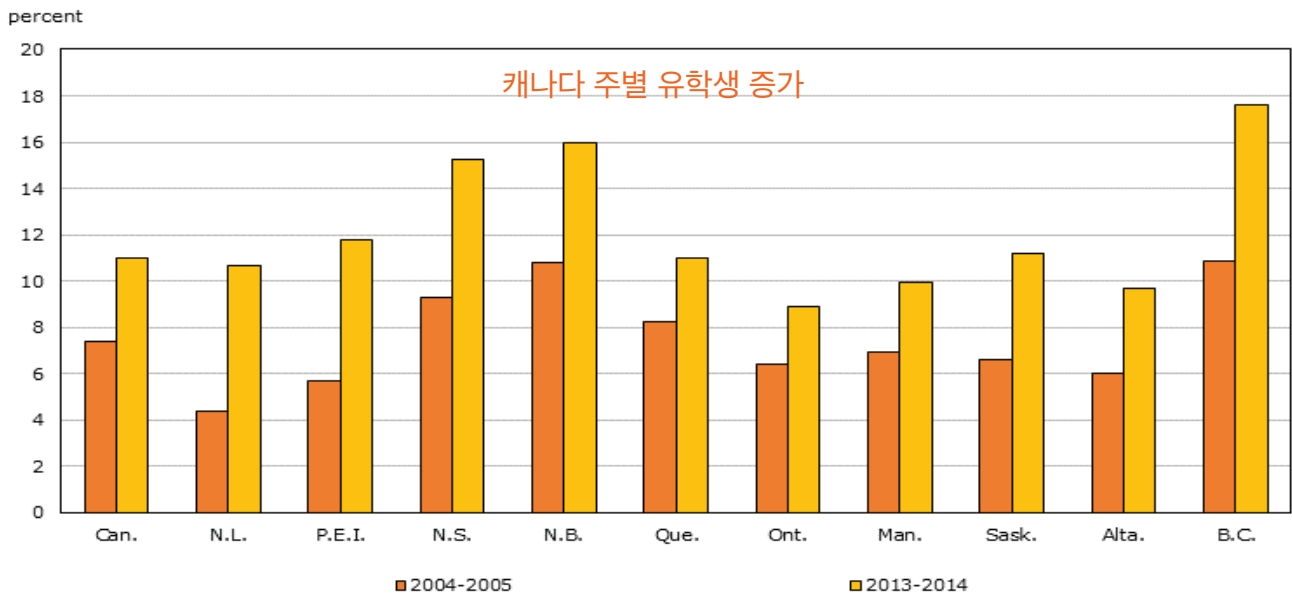
-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점점 다민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방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Source: Statistics Canada, Post-secondary Student Information System (PSIS), 2004-2005 to 2013-2014.

캐나다 대학 총학생 수에서 유학생의 비율은 7% (2004~2005)에서 11% (2013~201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학생수는 66,000명 (2004-2005)에서 124,000명 (2013-2014)로 88% 증가했다. 반면에 캐나다 출신 대학생 증가율은 22%였다.



Source: Statistics Canada, Post-secondary Student Information System, 2004-2005 to 2013-2014.

2004-2005년에서 2013-2014년에 주별로 대학 유학생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British Columbia는 +6.7, 대서양 연안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and New Brunswick)는 +(5.2~6.3) 증가 그리고 Saskatchewan은 +4.6 만큼 증가했다. 2013-2014년에 총학생 중 유학생 비율은 Ontario, Alberta와 Manitoba 가 8.9%, 9.7%와 10.0%로 가장 낮으며 상대적으로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과 Nova Scotia 17.6%, 16.0%와 15.3%로 가장 높다.

미국 유학생 현황

미국의 유학생 수는 886,052명이고 유학생의 62%가 10/40 Window 국가에서 왔으며 68개국에서 451,568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학생 상위 10개국: China, India, South Korea, Canada, Taiwan, Saudi Arabia, Japan, Vietnam, Mexico, Turkey)

세계 220여 개국의 국가 원수 중 40%가 미국에서 한 번 이상 공부한 사람들인데 유학생의 80%가 미국인 가정에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고 평균 4년의 거주 기간 동안 85% 이상이 북미에 있는 기성 교회에 초청되거나 Christian들과 의미있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유학생 중 오직 10%만이 미국에 있는 동안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 유학생에게라도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모국으로 돌아가 얼마나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칠지 상상할 수 있다. (Source: TheTravelingTeam.org - International Students in USA, 2013~2014)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민, 취업 그리고 난민으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부분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찾아가 도우며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은 그들과 영적 친구 또는 영적 부모가 되어 섬길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5. 친구 가운데 신실한 성도를 찾아 모자이크 선교 비전을 나누라

이제 서로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 그들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누며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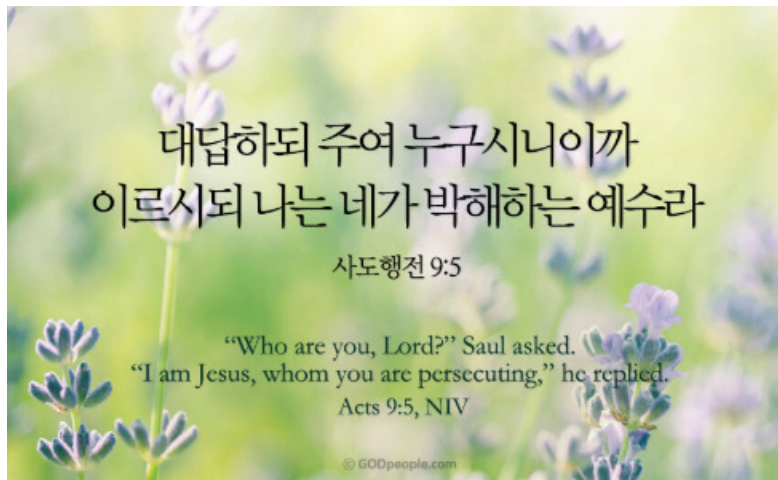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과 함께 커피나 식사를 하며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가자.

기도: 주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 친구들끼리만 즐기고 교제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타 문화권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ession 5: Sponsorship & Partnership Together]

Pastor Ihsan Jaro(이라크)가 난민으로 입국하는 시리아 크리스찬 가족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에 곁에서 무슬림 난민을 기다리던 이슬람 지도자가 자기를 무슬림 중 한 명으로 보고 말하기를 “무슬림이 오거든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숙소, 가구, 생활용품 및 직장도 마련해 주고 돌봐주겠다”라고 했다면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형제자매들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공동체, 친구, 친척 그리고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렵게 난민으로 캐나다에 왔는데 무슬림은 그들의 고향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들이 속할 공동체가 있고 보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소외된 채 정착하기 위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매우 아팠다.

1. 소외받고 고난받는 자와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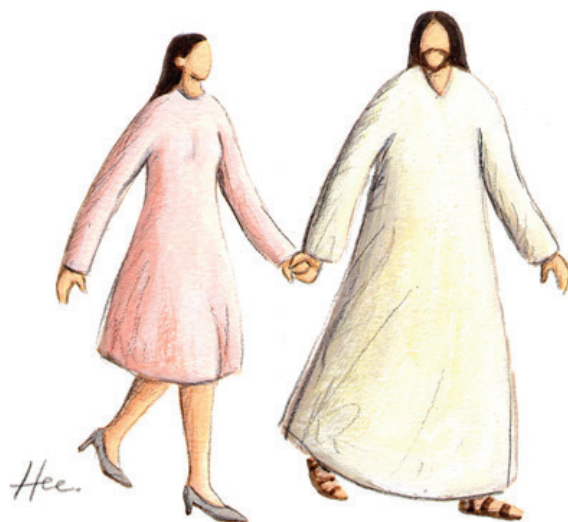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 사도행전 9:1~2 -

다메섹으로 갈 때 “...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사도행전 9:3~5 -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중인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좋은 성경적 증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주린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 그분이 모든 궁핍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자기 종족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영육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민족 교회, 지도자, 성도들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는 네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이 영육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도록 도우며 함께 동역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핍박과 소외된 삶의 영적 황무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적 씨앗

소외된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요한은 요한복음 1:14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한은 소외되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간음한 여인, 세리 등을 찾아가시고, 용서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사랑, 온유 그리고 자비하심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갈라디아서 2:20) 예수님 안에서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모르는 채 난민, 이민, 취업으로 우리 곁에 와 함께 사는 이웃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 소수의 성도와 그룹에서 부흥을 보는 비전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사도행전 11:20 -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13:31-32)

- 연약한 미전도 종족 한 성도 (씨앗) 속에 담긴 무한한 영적 잠재력을 보는 비전
- 그들 (겨자씨)을 통해 부흥한 교회 (큰 나무)를 보는 성장의 비전
- 부흥한 교회 (큰나무)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보는 재생산의 비전
- 모자이크 선교 (벼 한알 → 180 벼알, 감자 → 60개 감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욥 8:7 -



성경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살게된 안디옥에서 자기 종족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도 몇몇 교회와 성도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우리끼리만의 신앙 공동체 담장을 넘어 미전도 종족과 교회가 필요한 타 문화권 종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으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삶에서 적용하기

주변에 있는 타 문화권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자.

2. 후원하기 (Sponsorship Mission)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 고린도전서 3:6-7 -

1. 농부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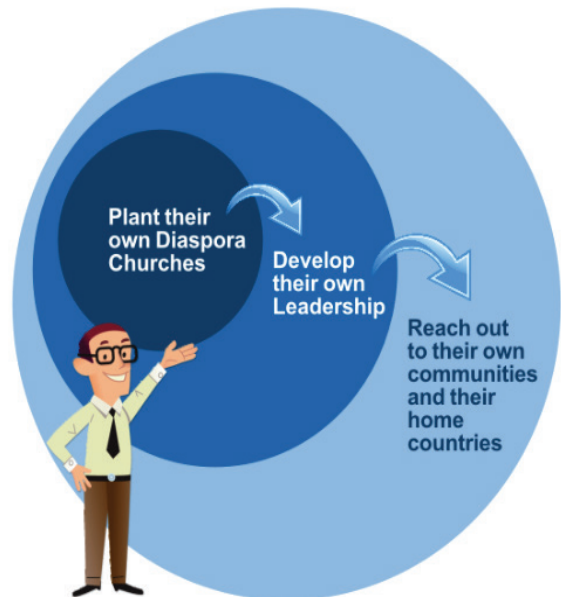
모종(Seedling) :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 성도 또는 그룹

모판(Seedbed) : 미전도 종족 성도와 그룹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선교적 교회

묘목(Sapling) : 아직 연약하나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 교회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CMCA)는 교회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 (모종)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선교적 교회 (모판/Sponsorship)를 Networking하여 함께 동역함으로써 미전도 종족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스스로 자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선교단체다.



모판에 심긴 모종과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건강한 나무

태국 교회 이야기: 2005년 토론토 영락교회가 타 문화권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캐나다에는 태국 교회가 없었다. 영락 교회는 기도하며 태국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태국인 성도 Sue와 Frank를 만나게 하셨다. 태국에 살면서 가까운 친구조차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등을 돌리고 떠났던 아픈 경험을 한 이들은 캐나다에서 2년 반 동안 한 명의 태국인도 만나지 못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태국인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태국 교회를 개척하라고 부르신 증거로 알겠다’고 기도하였다. 그 후 어느 날 식품을 사러 들렀던 한 수퍼마켓에서 태국인 성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태국 교회를 캐나다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위해 자기들을 부르셨다 믿고 토론토 영락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며 태국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농부의 마음과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락 교회가 태국, 미얀마, 베트남 교회를 중국교회 (RHCCC)와 본한인교회 (VCC)가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권을 위한 교회 (HSC)를 그리고 중앙한인교회가 네팔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Sponsorship Mission의 좋은 모델이라 할 것이다.



아랍 교회 HSC를 개척을 지원하는 VCC교회와 RHCCC 교회가 일곱 시리아 난민 가정 (RHCCC후원)의 캐나다 도착을 축복하며 교제하는 모습

Our Stories: <http://www.cmcaallnations.org/our-stories/>

- Pastor Sue & Frak, Solomon James, Timothy (태국, 미얀마, 베트남 교회) 이야기
- Pastor Ehsan Jaro (아랍 교회) 이야기
- Pastor Peter Upreti (네팔 교회) 이야기

2. Sponsorship 역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 누가복음 6:38-

물지게꾼과 금 간 물통 이야기: 물지게꾼의 두 물통 중 한 물통은 완전하고 다른 물통은 금이 간 상태였는데 매일 주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집에 돌아오면 한 통에는 물이 가득 남아 있지만, 금이 간 통에는 오는 중에 물이 새고 남은 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금이 간 물통’은 주인에게 늘 미안해했다. 그러자 하루는 주인이 물을 길어서 돌아오는 길에 꽃이 만발한 길가를 보여주며



말하기를 “깨어진 너를 통해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내가 씨를 심었고 네가 흘린 물로 인해 아름다운 꽃들이 이처럼 길에 피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꽃들로 기뻐하고 나도 이 꽃을 가져다 내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모든 것이 깨어진 물통 너 때문이다. 고맙다”라고 칭찬했다.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잔악한 식민지 정책과 6.25 전쟁 등으로 황폐화되어 버린 조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살아온 한인 디아스포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북미나 유럽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동안 한 것이 없어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부족하고, 아프고, 깨어진 이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성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타문화권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면 그들 공동체 안에도 복음의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모두 너희의 겸손하고 성실한 섬김 때문이다”라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리라 믿는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는 그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고향을 떠나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온 소수민족으로서 이민 생활의 경험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이민, 난민, 취업 그리고 유학 등으로 우리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타문화권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새로운 그들의 가족이요 영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3. 후원하는 교회 (Sponsoring Church)와 성도의 마음 자세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술과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안다. 마찬가지로 미전도 종족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자문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역 관계 가운데 있는 타문화권 소수민족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언어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전 (Self-Propagation), 자립 (Self-Government), 자치 (Self-Support)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슬람권 공동체 안에서 개척되는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정이나 교회가 아닌 건물에서 모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문화와 종교가 다른 배경에서 교회를 세우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방법에 따라 사랑으로 겸손히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서양 기독교 문화와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가 자립하고 타문화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겸손히 나누면서 그들 또한 이 비전에 공감하고 자기들의 울타리를 넘어 타 문화권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대적이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관계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교회 성도들 안에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 및 영적 가족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그들이 속할 영적 가족 (Spiritual Family)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하듯이 영적으로 연합한 미전도 종족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의 형제자매가 되고 또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서 적용하기

타 문화권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안에서 영적 친구 또는 부모로서 섬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자들과 교제를 시작하세요.

3. 동역하기 (Partnership Mission)

마가복음 2:1-12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네 사람의 동역자 이야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동역한 네 사람에게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서 치료받아 건강하게 하려는 같은 비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공통의 필요, 상호 유익 그리고 동역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비유를 모자이크 선교 사역에 적용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며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네 사람은 모자이크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미전도 종족 성도 (또는 교회),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사역자와 미전도 종족을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 단체인 CMCA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수많은 선교사의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예수 그리스도)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도 역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2017 연합 전도 집회 (2017 New Life Festival)

• 영적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역해야 한다

선교는 우리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물 주는 자는 각각 다를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물 주는 자,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를 각각 동역자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6-7 씨뿌리고 물주는 자 비유) 이러한 동역의 관계는



첫째 미전도 종족 교회를 섬기기 위해 두 교회 이상 후원 교회가 동역할 수 있으며 둘째는 후원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셋째는 후원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소수민족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동역하며, 넷째는 개별 교회 안에서 성인과 청소년, 모국어 사용 성도와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함께 동역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함께 동역할 수 있다.

• 친밀한 연합과 동역의 비밀은 연약함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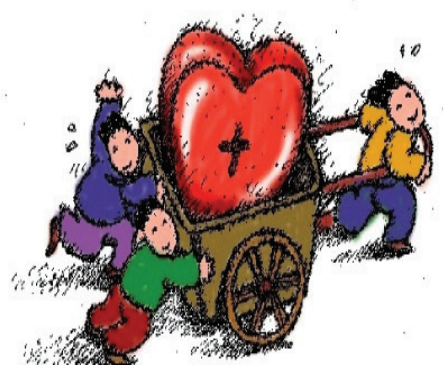
- 허드슨 테일러 -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인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씨 뿌리고 물주는 동역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또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나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제자도의 기본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다.

• 동역에는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하다

모든 사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성장한 교회나 성도들은 아직 연약한 타문화권 종족 교회나 성도들과 동역하기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씨앗은 봄에 싹을 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영양분을 축적하며 기다리듯이 모자이크 선교를 위한 동역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즉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곳에서 미전도 종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실함이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거기에 사랑과 섬김의 횃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르심과 뜻이 있으나 결과가 부정적이며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갖고 성실히 보내신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개척된 교회도 동일한 비전으로 동역하여야 한다

후원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성장한 소수민족 교회와 성도들도 CMCA 비전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동역하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 미전도 종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Sponsorship과 Partnership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한다

미전도 종족 교회들과 후원 교회 간에 Sponsorship과 Partnership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캐나다 내 주류 교회들 (mainstream churches)이 캐나다 내 미전도 종족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자를 직접 파송하는 것보다 자기 종족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자기 언어와 문화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우면서 (Sponsorship)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Partnership)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은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 세워지는 미전도 종족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동역할 때 소수 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후원 교회도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한 주의 몸 된 지체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연례 수양회

삶에서 적용하기

미전도 종족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 그룹을 찾아 CMCA 비전을 나누고 그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한다.

5. Networking과 동역하기

“...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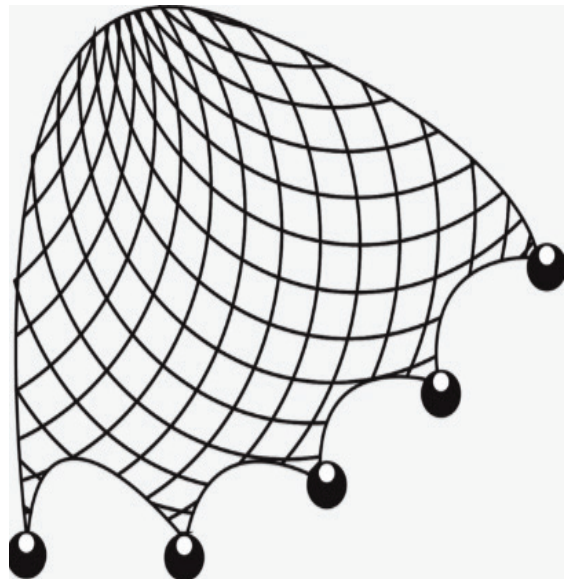
(“...They were in a boat with their father Zebedee, preparing their nets.”)

- 마태복음 4:21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마가복음 1:17 -

예수님께서 고기 잡을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 networking을 이해하는데 좋은 영감을 준다. 그물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밑으로 가라앉는 부분과 위로 떠 있는 부분이 함께 어울려 고기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러한 그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낚고 (preparing their nets)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불러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사도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어부가 고기 잡는데 그물 (nets)이 필요하듯 사람 낚는 어부는 networking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다.



모자이크 선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은 캐나다에 함께 살고 있는 273 종족, 200여 언어 공동체 가운데 있는 50여개 미전도 종족이며 그들은 대부분 10/40 Window에서 온 종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으로 불러와 살게 하신 미전도 종족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할 선교적 교회들을 networking하여 서로 동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모자이크 선교에 동참하여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육을 위해 섬길 성도들을 (세대별, 언어별) networking하여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자이크 선교에서 CMCA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1. 중보 기도: 중보기도는 언어, 나이, 재정, 건강, 시간... 등의 제약을 넘어 동역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도록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2. 비전 나누기: CMCA 비전과 사역 및 기도 제목 등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동역하도록 초청한다.
3. 미전도 종족 정보 모으기: 선교해야 할 미전도 종족 (주로 10/40 Window 내 거주 종족)에 관한 정보를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는 전문 웹사이트,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모아 CMCA에 전달한다.
4. 후원 교회 연결: 모자이크 선교에 동역하기 원하는 선교적 교회를 CMCA와 연결한다.
5. 자원봉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가정, 교회, 타문화권 사역장에서 동역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분야 :

- CMCA 행정, 관리, 컴퓨터 작업 (문서 작성, power point 제작, Excel 작업, 영상 제작,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 등), 회계 (장부 정리, 세무 보고 등)
- 언어 번역/통역 (영어, 중국어 또는 다른 종족 언어...), 선교를 위한 외국어 교육
- 각종 이벤트 (연합 전도 집회, 지도자 수련회, 청소년 집회 등) 기획 준비 진행
- 접대 (타문화권 교회, 성도, 사역자, 자원 봉사자 등)
- 재정 지원: 그 마음에 정한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7)
- 법률 자문, 건강 자문, 상담사역, 언어 교육 (영어, 중국어, 한국어...)
- 교회 개척, 예배, 각종 사역에서 찬양 (전자 오르간/기타/드럼 등), 데코, Ride로 섬기기
- 요리 강습, 언어교육, 미술학교, 음악지도 등으로 섬기기
- 교회 학교,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 소수민족 교회 또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등에서 섬기기
- 가정 사역, 노인 사역, 싱글맘 사역 등에서 섬기기...
- 기타

삶에서 적용하기

모자이크 선교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과 은사 그리고 시간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자

기도: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하여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여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모자이크 선교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osaic Ministry Discipleship School (MMDS)

소수 민족 교회 - 성도 - 교회 - CMCA 동역관계

단계별주요사역	소수민족/교회	동역성도	동역교회	CMCA
1. Cultivating (개간) - Prayer - Vision Sharing - Survey	- 교회가 없는 상태 - 가정에서 소수가 모이는 상태 - 교회가 있으나 자생할 수 없는 상태	- 비전나눔 (만남, 이델, 카톡) - 중보기도팀/ 사역팀참여 - 만남, 인터넷, 책등을 통해 선교대상 종족 알아보기 - 선교의 고정 관념 탈피하기	- 성도들에게 비전선포 - 중보기도 그룹구성 - 다민족선교사역팀구성 - Demographic & Ethnographic Survey - 종족분포, 삶...조사	- CMCA Vision Presentation - 동역교회 시스템 구축협조 - 동역교회 사역자 교육훈련 - Demographic & Ethnographic Survey - 종족분포, 삶...조사
2. Planting (씨 뿌리기) - Target Group - Understanding - Sponsorship	- 교회개척을 CMCA와 동역하기 시작한 상태 - 후원 교회, 그룹이 연결된 상태	- 선교대상 종족 이해 (세계관, 문화, 종교...) -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하기 - 다민족 사역자훈련 참여	- 선교대상종족선정 - 중보기도그룹활성화 - 교회내사역자양육활성화 - 성경공부, 기도모임지원	- 종족에대한정보공유및 희망종족과만남추진 - 소수민족지도자발굴 - 다민족선교사역자양육
3. Sapling (성장기) - Evangelizing - Discipleship - Friendship	- 불신자를 초청 (성탄절, 부활절, 구정등) - 성경 공부, 기도 모임 - 지도자 신학 공부	-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참석 - 친구 만들기 - 소수민족 친구, 이웃을 해당 종족 교회 또는 전도집회로 인도 - Contextual Apologetics 참여	- 예배처소, 재정 지원 - 제자훈련, 지도자양육 지원 - 전도집회, 행사지원 - 대상종족 만남 기회 활성화 - Contextual Apologetics 개최	- 연합 다민족 전도집회 개최 - 연합 다민족 문화축제 개최 - 종족별, 종교별 세미나 개최 (Contextual Apologetics) - 제자훈련, 지도자양육지원
4. Flowering (성숙기) - Partnership - Networking - Fellowship	- 타 민족과 동역 - 자체 자매 교회 개척 및 연합한 교회 지원	- 3 단계 사역 계속 - Fellowship/Friendship 증진	- 3 단계 사역 계속 - 동역관계강화 (Sponsorship -> Partnership)	- 3 단계 사역 계속 - Networking, Partnership, Fellowship 관계지원
5. Fruits (열매/재생산) - Commissioning - Partnership - 자매교회개척 - 모국 및 다민족선교	- 캐나다 다민족 선교 - 모국 선교사 파송 - 자매 교회 개척 및 지원 확대	- 선교사후원, 교회 개척 동역 - 동역자 동원 - 모국선교지원 - 새로운종족선정	- 선교사파송지원/동역 - 자매교회개척지원/동역 - 모국선교지원/동역 - 새로운종족교회개척	- 캐나다다민족선교동역 - 모국선교사파송동역 - 해외선교동역

마13:31~32 (겨자씨 비유)

1. 연약하고 작은 소수 민족(작은 씨앗)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는 비전
2. 작은 씨앗이 변하여 큰 나무(교회)가 되는 성장의 비전
3. 작은 씨앗이 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전
4. 작은 씨앗에 담긴 재생산의 비전 - 자매 교 개척, 타민족 선교, 모국 선교

[session 6: Team Work & Leadership]



Excerpts taken from *Flying in Formation:
Leading Teams to New Heights*

캐나다 기러기에서 배우는 리더십 교훈

내가 독수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대단한 힘과 시력은 나에게 품성과 용기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그들의 독립적인 비행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이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세 살짜리 누이가 기러기에게 공격당한 이후로 기러기는 또 다른 이야기다. 캐나다의 상징으로 존경받던 기러기는 지금은 특히 남부 온타리오주에서 골칫거리가 되었다. 개체 수가 늘면서 대다수 기러기는 더 이상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넘쳐나는 기러기는 주차장, 녹지와 보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러기에게서 배울 교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러기는 팀워크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혼자 다니는 독수리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선교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 사역으로 선교를 할 때 기러기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1. 기러기는 효율적인 팀을 구성한다

기러기는 혼자 비행할 때보다 편대 비행할 때 더 빠르게, 더 오래 효율적으로 비행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V 형태의 편대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70%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앞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양력을 제공하면서 바람의 저항을 줄여서 전체 그룹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사역팀의 관점에서: 당신의 팀은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가? 팀원들은 사역과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짐을 나누고 있는가? 리더로서, 우리는 함께 맡은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따뜻하게 섬기며 보살펴주는 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2. 기러기는 팀 역할을 안다

위치를 돌아가면서 바꿈으로써, 각각의 기러기는 공기 저항의 예봉을 차례로 받는다. 각각의 기러기는 전체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마리의 기러기라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기러기들이 고통을 당한다.

사역팀 관점에서: 도전적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팀원들 각자의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사역팀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러기는 그들의 리더를 돕는다

기러기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팀을 이끈다. 위계질서의 파괴는 없다 - 리더 기러기는 그가 바람의 힘에 더 이상 저항 할 수 없을 때까지 비행 코스를 담당한다. 뒤를 따르는 기러기는 뒤에서 올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리더 기러기는 뒤돌아보지 않으며,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과 같은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자기를 전적으로 뒷받쳐 준다는 확신을 하고 목표 지점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다른 기러기도 차례가 되었을 때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차례가 될 때 그와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팀 관점에서: 팀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리더가 팀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큼 팀이 리더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동일한 목표로 통합되고 공유된 리더쉽 비전에 헌신함으로써 팀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4. 기러기는 소통의 명수다

기러기가 수시로 “기록기록” 하며 내는 소리는(인간 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사실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다. 긴 비행 동안, 기러기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기록” 소리를 낸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에게 알리는 것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러기의 V자 대형은 서로 지켜보고 돌봐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역팀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팀에서 낙오될 때 의사 소통을 하지 않으면 팀이 어떻게 도와줄지 알 수 없다. 동시에 리더가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리더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팀은 길을 잃고 따라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리더 혼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5. 기러기는 서로를 돌본다

과학자들은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 당했을 때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낙오된 기러기를 돌보기 위해 뒤로 빠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뒤에 남은 기러기들은 낙오된 기러기가 다시 잘 날 수 있게 회복될 때까지 포식자로부터 보호한다. 이것은 “어떤 기러기도 뒤에 처지지 않는다”는 옛말과 같다.

사역팀 관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관계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고 있다. 팀 중 한 명이 뒤처지면 전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뒤처진 팀원을 돌보기 위해 되돌아가야 할 때일 것이다. 단독 비행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속담은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고 말한다. 빠른 속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만큼, 기러기에게서 얻은 교훈은 속도를 늦추고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 팀 사역을 하면,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초대 교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누가는 신자들이 "한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함께 통용했다"라고 기록했다. 초대교인들은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서로를 도움으로써 그렇게 했다. 돈과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기부했다. 여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각각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했다.

바울은 종종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힘을 주었고 말했다. 그들의 환대와 기도가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사역에서 전진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강력한 팀을 필요로 한다. 나를 위해, 그것은 때때로, 독수리에 대한 매혹을 제쳐 놓고 기러기에서 교훈을 배우도록 매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역을 위한 여정에 나를 도와줄 분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돈 무어 목사 -

기러기처럼, 우리도 때로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때로는 팀원으로서 리더를 지원하고 따를 수 있다.

Exercise

모두가 다 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힘을 합해 천을
뒤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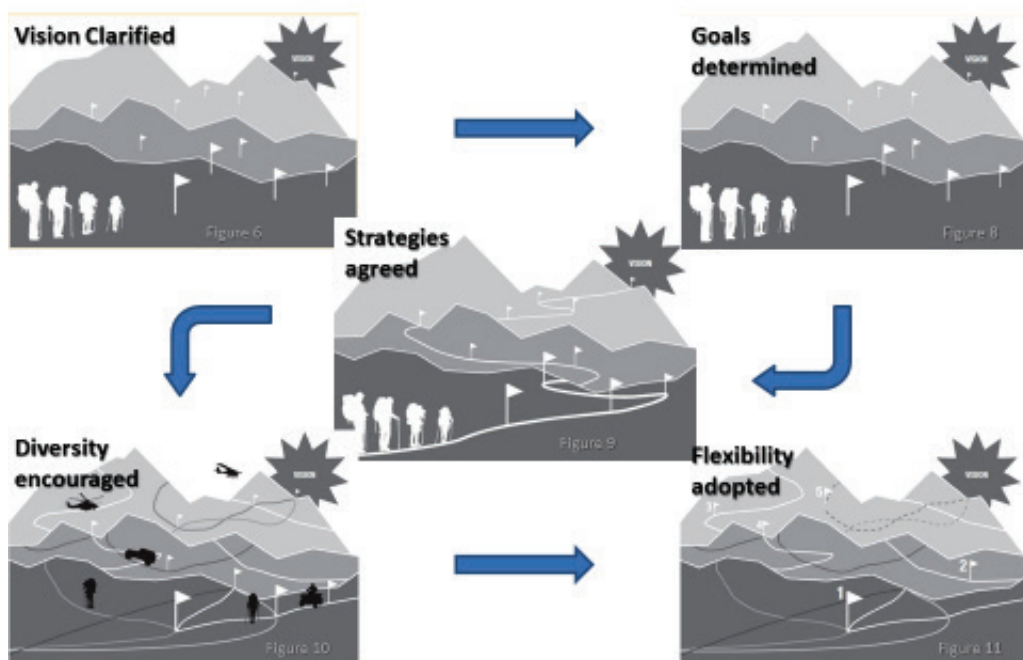
소그룹 토론 : 이 활동을 토대로 한 '팀워크'와 '파트너십'에 관한 관찰 또는 의견을 나누라

팀이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이며 (by Katzenbach & Smith) 구성하는 팀원들은 하나 이상의 공통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타 팀원들의 은사와 능력에 맞추어나가는 상대적이고 영속적인 작업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by Wright &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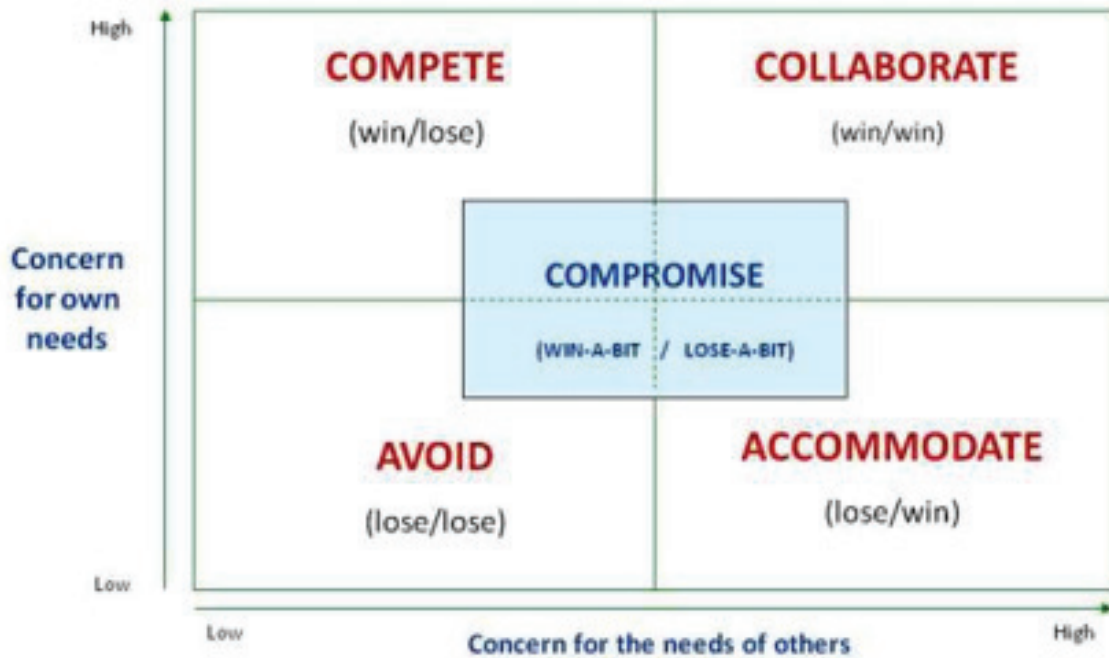
효과적인 팀은 팀원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주며 각 팀원은 그의 업무에 몰입하고 타인의 업무를 지지하고 수용한다. 각 팀원은 자기의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가 있으며 각 팀원의 목표가 합해지면 팀의 목표가 된다. 팀의 구조, 업무 수행, 정책, 체계가 팀원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팀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자기 계발이 함께 이루어진다. (by Varvey)

팀워크에 필요한 요소로서는 공동의 비전, 목표, 가치 그리고 서로 합의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 파악, 적절한 배치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개개인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극대화하고 팀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Vision to Actions... Illustrated



Conflict Preferences



© Michael Brown Training 2011. michaelbrowntraining@live.co.uk



팀워크와 파트너십에 관한 강의, 이규준, 위클리프 전국 디아스포라 디렉터

1. 비전 캐스터 (Vision Caster): 팀의 비전과 방향 설정

5가지 주요 성분 :

1. 분명히 하기 : 우리가 가는 목적지
2. 의무감 : 왜 우리가 거기에 가는가? 왜 이것을 먼저 해야하고 중요한가?
3. 소통 : 소통! 소통!
4. 창조성
5. 반복

팀: 혜택, 통합, 모멘텀 / 에너지, 성장

비전의 세 차원:

출애굽기 3:4-6: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품성,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들)

출애굽기 3:7-9: 공동체의 비전 (어디로 그리고 왜)

출애굽기 3:10-12: 개인의 비전 (누가 그리고 무엇을)

2. 동원가 (Recruiter): 팀에 적합한 사람들을 초청

팀의 스펙트럼

사무엘 상 22: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역대 상 12:1-2, 8, 22: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 갓 사람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 그 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동원가의 요령 및 유의 사항

- 나 같은 사람을 찾지 말고 팀원을 보완할 사람을 찾으라
- 자격에 미치지 못한 사람 주의하라
- 첫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맡기지 말고 점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주라
-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
- 개인적 비전과 열정 확인하라
- 비전을 나누고 이를 공유하며 팀원으로 참여하게 하라
- 바쁘고 유명한 사람보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라
- 개인적으로 만나 팀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듣는 사람이 더 낫다

3. 위임자 (Delegator): 책임자에게 적절한 사역 부여

리더십 유형 (출애굽기 18:13- 23)

- 판매형 (설득형)
- 대화형
- 참여형: 함께
- 위임형: 권한 부여
 - 지도자와 사람들 보호
 - 다른 지도자 및 사람들에게 기회 주기

무엇이 위임을 망설이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가를 보이려는 마음
상대가 일을 잘 못 하고 망칠까 봐 믿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

위임에 관한 주요 질문

1.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팀원이 80 %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 Bobb Biehl -

Leader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렵고 위험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신은 태스크, 프로젝트 또는 기능을 위임하고 있는가? - 지속적인 책임

3. 어떤 모습을 성공이라 하는가? 주요 산출물 / 결과는 무엇인가? - 목표를 향한 여행

위임의 네 단계

* 임무 할당 -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 권한 부여 - 내가 하도록 위임자가 해 주겠나?

* 책임 - 내가 필요할 때 위임자가 도와주겠나?

* 확인 -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위임자가 알려주겠나?

소그룹 토론 : 각자의 소회

출애굽기 18:13-23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라.

1. 이드로 (모세의 장인)가 당신의 리더십을 관찰한다면 위임에 관해서 당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잘 못 하고 있다"고 할까?

2. 2분에 걸쳐 당신이 하는 활동과 태스크의 목록을 만들어라.

3. 목록을 살펴보자. 지금 주어진 활동 / 태스크를 당신의 80%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니셜을 활동 / 태스크 리스트 옆에 적어라).

4. 위임을 하면 정말로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활동 / 과제 옆에 이니셜을 두는 것을 고려하라). (그 사람의 이니셜을 활동 / 태스크 리스트 옆에 적어라).

5. 보다 효과적으로 위임했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팀원들과 공유해라 : 위임자로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활동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위임을 위한 중요한 질문

효과적인 위임을 위한 근거

- 더 많은 위임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 더 이상 위임하지 않을 때 어떤 비용(손해)이 발생하는가?
- 더 많은 것을 위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임할 것들에 대한 식별

-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반복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로를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작업을 문서화 할 수 있는가?
-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가?
- 어떤 위임 과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가?
- 과제, 프로젝트 또는 기능을 위임하는가?

위임 받을 사람 (양수인) 찾기

- 어떤 배경, 품성, 역량 및 능력이 필요한가?
-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효과적인 위임을 위한 열쇠

-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인 경로가 있는가?
- 어떤 권한이 위임되고 있는가?
- 양수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언이나 대화가 필요한가?
- 양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 또는 지원은 무엇인가?
- 성공을 위해 어떤 성과와 결과물이 필요한가?
- 언제 어떻게 피드백, 수정 및 / 또는 격려를 할 것인가?

4. 격려자 (Encourager): 동기 부여 및 팀 사기 진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11

‘나는 지난 7일 동안 일을 잘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인식에, 안타깝게도 칭찬은 대부분 회사와 그 내부의 작업 그룹에서 보이지 않는다. 3명의 직원 중 1명 이하 만이 ‘지난 7일 동안 나는 일을 잘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어느 회사에서든 1/5에서 1/3 사이의 직원이 지난 7일 동안 인정과 칭찬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마치 "최근에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최선의 노력은 일상적으로 무시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은 다음 해에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두 배라고 말할 수 있다."

칭찬과 인정은 생산성과 수익성의 10-20%에 영향력을 미치고 대기업에 대한 수천 명의 단골고객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격려자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열쇠

1. 역할을 말아라
2. 교회/단체 차원에서 격려하라
3. 개인적으로 격려하라
4. 특별히 격려하라
5. 정기적으로 격려하라

소그룹 토론 : 팀을 격려하기

1. 누군가가 당신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예: 언제, 어떻게, 어떤 격려 등)
2. 의도적으로 팀 구성원을 격려하는데 가장 큰 세 가지 걸림돌은 무엇인가?
3. 이러한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아이디어, 실행 및 해결책은 무엇인가?

직원 참여 확대를 위한 12 가지 핵심 요소

갤럽은 1,000 만 명의 직원 및 관리자 인터뷰를 114개국에 걸쳐 41개 언어로 진행한 후, 통계적이며 획기적으로 직원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12개의 핵심요소를 발견했다.

12개 핵심요소는 질문의 형태로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1. 더 많은 위임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가?
2. 나는 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장비가 갖춰져 있는가?
3. 직장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4. 지난 7일 동안 나는 잘한 일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을 받았는가?
5. 직장 상사나 다른 동료가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보이는가?
6. 나의 발전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7. 직장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가?
8. 내 회사의 사명 / 목적은 내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가?
9. 동료들은 양질의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10.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가?
11.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동료가 나의 발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가?
12. 작년에 나는 직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From: 12 The Elements of Great Managing, Rodd Wagner and James K. Harder. Gallup Press, 2006.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Steve Brown, Leading Me

자원 봉사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33가지 방법

자원 봉사자는 교회의 혈액이다. 사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행동은 종종 자원봉사 팀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아래 목록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이번 주말에 교회 또는 섬기는 단체에서 시험해 보지 않겠는가?

1. 모든 임무교대가 시작될 때 팀 리더는 왜 자원 봉사자가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야 한다.
2. 이번 주일에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3. 생일 카드를 보내라.
4. 자원 봉사자가 봉사할 때마다 3-4일 전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메일을 보내라.
5. 주요 담당자를 지정해서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첫 주말에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라.
6.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칭찬해라.
7. 자원 봉사자의 개인 신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해라.
8. 자원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확보해라.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9. 봉사하기 전후에 항상 음식을 준비해라.
10.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쉽게 감사 노트를 팀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해라.
11. 모든 교대가 끝날 때마다, 자원 봉사자들이 미래를 위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라.
12. 자원 봉사자들이 교회/단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력 개발 기회를 만들어라.
13. 팀과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요구하지 마라.
14. 파티를 정기적으로 열어라!
15. 자원 봉사자를 위한 추천서를 작성해라.
16. 당신의 교회/단체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관해 당신이 받은 "영향력 있는 이메일"을 팀에게 보여 주어라.
17. 쉬운 출구를 만들어라 ... 자원봉사 팀을 영원히 자원봉사자로 묶지 말아라!
18. 자원봉사팀이 기대치를 넘어 뭔가를 할 때는 당신의 팀을 축하하는 보도 자료를 커뮤니티 신문에 보내라.
19. 자원 봉사자가 당신의 교회/단체의 미래에 일어날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대해 "처음 아는 자"들이 되게 하라.
20. 팀 티셔츠를 주어라.
21. 모두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22. 연례 보고서 또는 기타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에 자원봉사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라.
23. 자원 봉사자가 지난해 봉사한 시간을 계산하고 축하해라!
24. 유급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원 봉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라.
25. 자원 봉사자의 봉사활동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 채널에 올려라.
26. 자원 봉사자가 자신의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최상의 장비를 갖추도록 확인해라.

27. 자원 봉사자들이 교회/단체 리더쉽과 대화할 수 있는 쉬운 통로를 만들어라.
- 28)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상환해준다고 강조해라.
- 29) 직접 서명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자원봉사자에게 보내라.
- 30)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라.
- 31) 핵심 자원 봉사자가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책임을 맡도록 해라.
- 32) 매주 적어도 한 명의 자원 봉사자를 만나서 감사하고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을 가져라.
- 33) 당신에게 영향을 준 10권의 책을 사서 10명의 뛰어난 자원 봉사자에게 주어라.

From: 33 Ways to Show Appreciation to Volunteers at Your Church, Rich Birch. UnSeminary Magazine, 2013. www.unseminary.com

5. 개발자 (Developer): 개인과 팀 능력 신장

“주기적으로 당신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는 노력은 결코 원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팀원이 당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해결책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은 당신이 지시한 것만 완수하면 된다고 믿는다. 이건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다.” Susan Scott, *Fierce Conversations*

나의 역할과 사역이 오직 3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라. 그렇다면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1-13

개발자의 주요 활동: 데살로니가 전서

사랑 (2:8, 2:17), 기도 (1:2, 3:10-13), 모범 (1:5-6, 2:9-10), 전망 (1:4-10),

격려자 (2:11, 3:1-3), 교사 (2:14, 4:3 이하)

소그룹 토론 : 다른 사람을 개발하기

1. 당신이 팀원 또는 리더로서 개발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경험을 생각해 보라.
2. 개발자로서 보다 의도적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팀 리더를 위한 중요한 질문

팀 리더

- 당신은 어떻게 당신 팀에 모범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가?
- 당신은 팀을 선한 목자처럼 이끄는가 아니면 소몰이꾼처럼 몰아가는가?
- 언제 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 팀 및 / 또는 각 팀원이 성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받은 마지막 시기는 언제인가?
- 누구를 격려할 수 있는가 / 격려해야 하는가?
- 어떤 대단한 성과 또는 성취를 축하해야 하는가?
- 다른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팀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팀 건강도 점검

- 1-10점 (가장 높은 점수 10점) 가운데 당신 팀의 신뢰도는 어느 수준인가?
- 팀 내 갈등이 잦은가?
- 사역팀의 사명은 팀원 모두에게 명확한가?
- 팀 내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
- 팀이 함께 즐겁게 보냈던 시간은 언제인가?
- 모든 팀원은 각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알고 있는가?
- 모든 팀원은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는가?

평가

- 팀의 핵심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 적절한 마음과 품성과 실력을 갖춘 팀원은 누구인가? 그렇지 못한 팀원은 누구인가?
- 미개발 잠재력이 있는 팀원은 누구인가?

- 팀의 성과, 분위기 또는 성공을 해치는 결함을 가진 팀원이 있는가? 팀원들은 문제의 결함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팀원들이 결함을 식별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기

- 한 명 이상의 팀원을 고용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 팀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어떤 기술 / 선물 / 경험이 필요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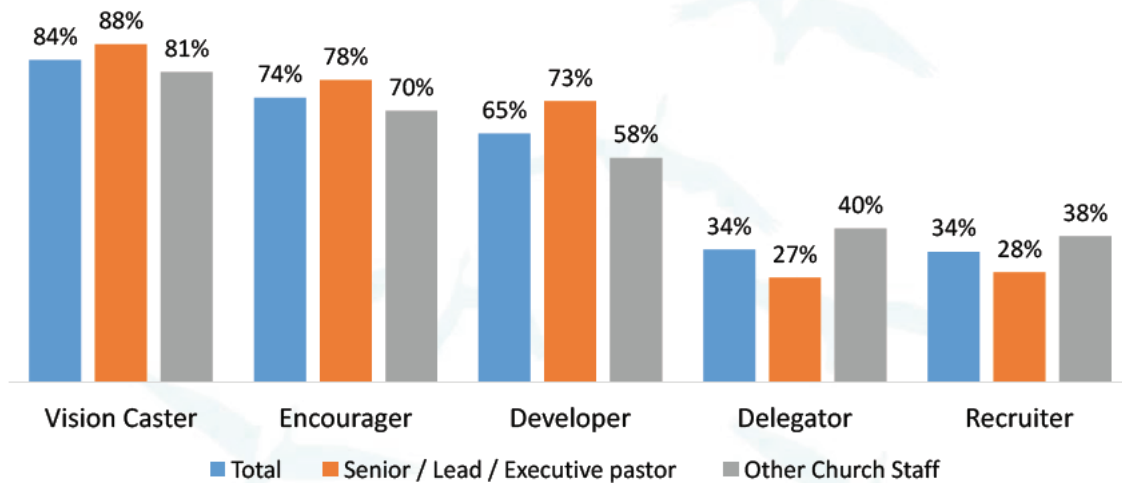
From: Great Questions for Leading Well, Dr. Steve Brown. Arrow Leadership store.arrowleadership.org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 CMCA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로 초대하라.
- 오늘 팀원들을 격려하라.
- 현재 또는 미래에 팀에서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수행할지 점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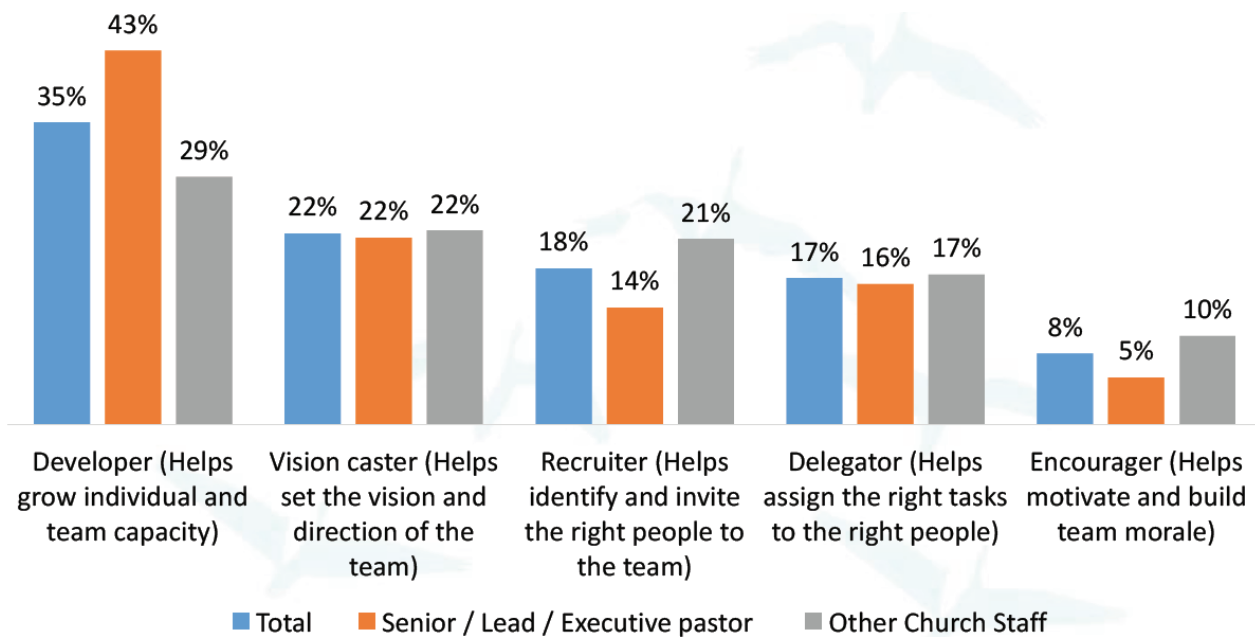
**기도 : 주님, 제가 기러기들을 통해 팀워크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제가 훌륭한 팀 리더이자 동시에 훌륭한 팀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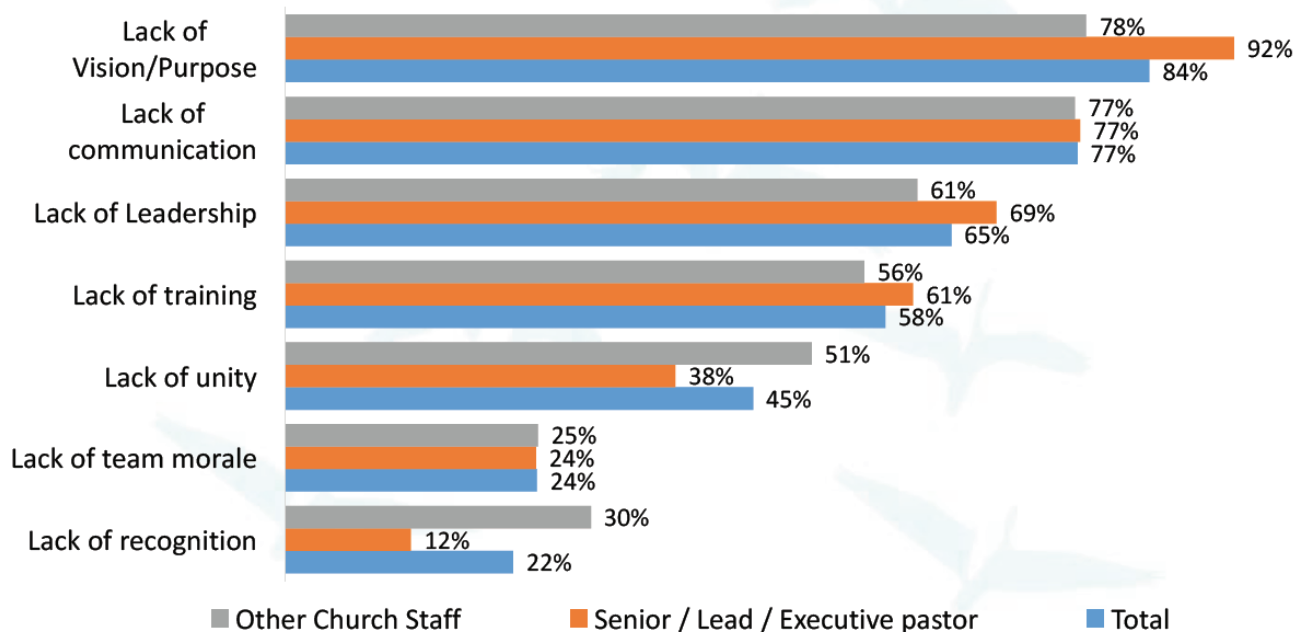
팀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From: page 7 in the Flying in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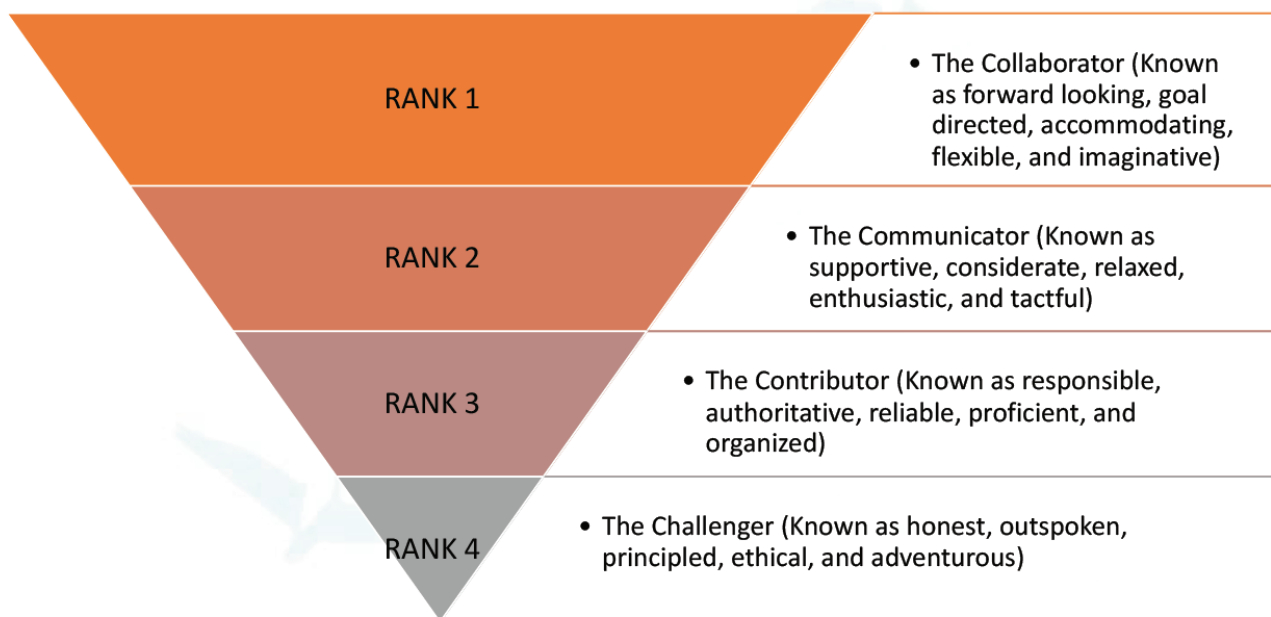
팀 리더로서의 발전이 필요한 역할

From: page 7 in the Flying in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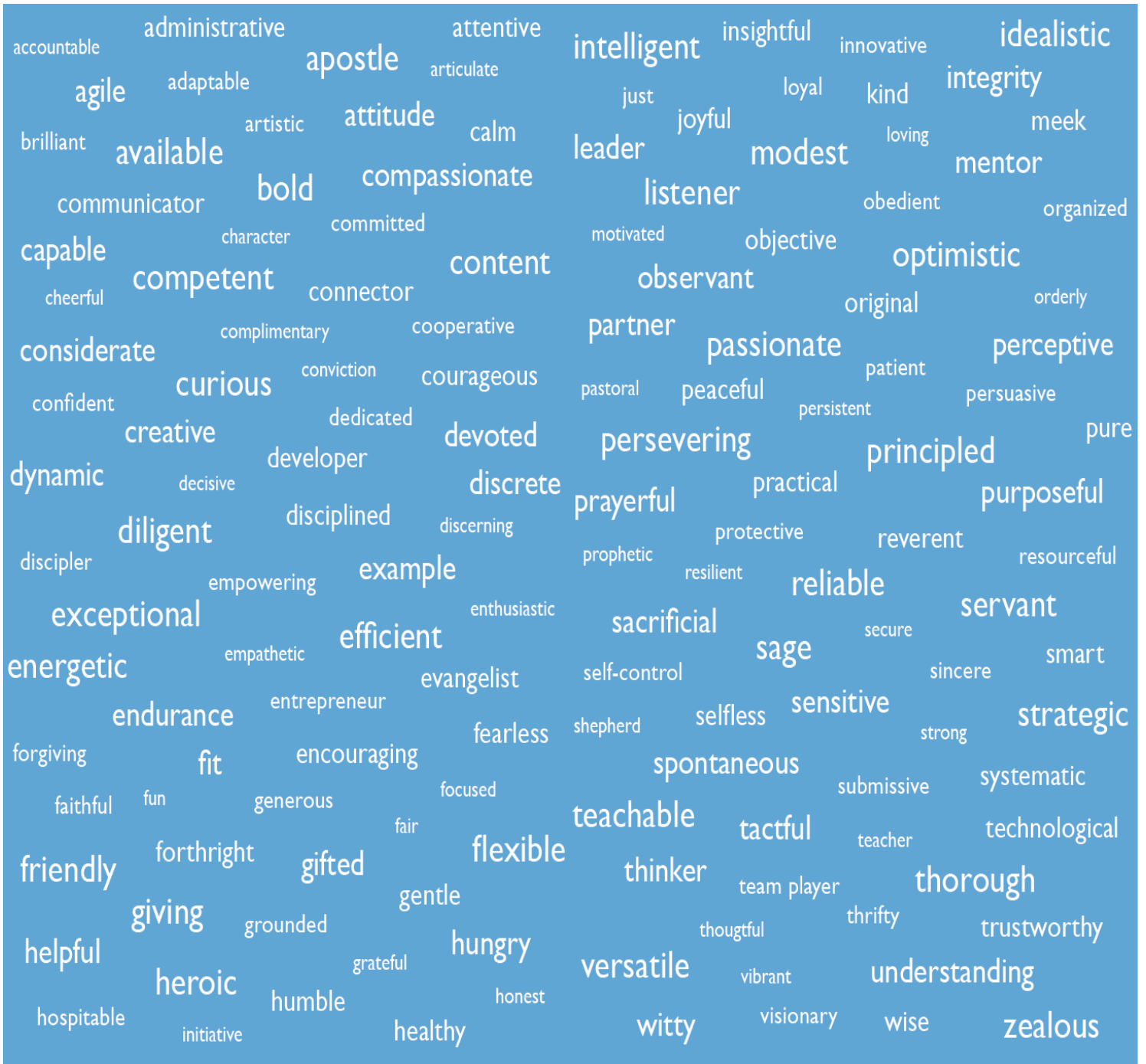
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

From: page 8 in the Flying in Formation



팀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From: page 8 in the Flying in Formation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150개의 격려에 관한 단어들

From: page 28,29 in the Flying in Formation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파송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한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나이 든 권사님이
“나는 선교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에요”라고 말하자 그 선교사님은
“권사님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그러니 캄보디아에 오셔서 현지인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귀한 선교 사역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드렸다. 그러자
권사님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으로 오셔서 현지인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를 계기로 현지인이 식당을 차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자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을 경험한 선교사님은 ‘수년간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의 김치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겸손히 말씀하셨다.

이처럼 권사님이 머나먼 선교지 캄보디아에 가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귀한 선교 사역이 되었다면 우리 이웃으로 사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도 주님께서 귀한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시리라 믿는다.

1.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1. 우리 생활 터전이 선교지이다

교회 사역을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 대다수 성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해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 다니며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일터 (marketplace)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부양할 수입과 더
나아가 해외 선교사를 후원할 선교비를 버는 기회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가?

Christopher J.N. Wright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공적 광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표현을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용어는 직장 (marketplace)이라는 의미를 그저 순전히 경제적, 재정적 구조로서의 시장 (the market)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와 창조적 활동을 하면서 협력하는 세계 전체 - 일, 교역, 직업, 법, 산업, 농업, 공학, 교육, 의술, 대중매체, 정치와 정부, 심지어 레저, 스포츠, 오락까지 포함하는 - 를 말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성문’이었다. 성문은 모든 도시나 마을에 있는 공적 광장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 어떤 종류든 자신의 일을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참여의 세계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하나님은 이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고 또한 감독하신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성소보다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아모스 5:12-15)

‘공적 광장’이라 말하든 구약에서 ‘성문’이라 말하든 이것은 평범한 우리들이 ‘매일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다. 존 스토틀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바울이 사용한 ‘디아코니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3:4-6에서 국가의 사역에 대해서 쓰면서 바울은 두 번이나 다른 곳에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디아코니아’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포함하는 언어다. 입법자, 공무원, 행정 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세무원 등으로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혹은 행정 담당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다. - 존 스토틀 -

바울이 사용한 ‘디아코니아’를 존 스토틀가 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사무원, 기술자, 학생, 가정주부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되는 것이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해외에 나간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학교,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산다면 우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목사, 교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우리의 삶이 모자이크 선교 사역으로 사용되는데 제한받는 것은 없다

Christopher J.N. Wright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요한삼서 6절 요한이 가이오와 그 교인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전송하라’는 작별 인사 이상의 의미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프로페포’라는 동사는 신약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람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 (사도행전 15:3, 21:5, 로마서 15:24, 고린도전서 16:6, 10-11)라고 하면서 그것은 음식, 요금 또는 하룻밤 숙박비를 위한 돈, 안전을 위해 써주는 소개서나 추천서를 포함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나그네 된 자 즉 선교사에게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전송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대하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하겠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관점이 이와 같다면 교회든, 선교단체든 타 문화권 선교 사역자를 파트너로 내보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해 오던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것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방식을 뛰어넘은 다양한 선교 사역

열두 사도의 일과 택함을 받은 일곱 사람의 일이 꼭 같이 ‘디아코니아’ 곧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의도적이다. 전자는 ‘말씀의 사역’ 또는 목회적인 일이고 후자는 ‘먹이는 사역’ 또는 사회사업이다. 어떤 사역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와 반대로 둘 다 기독교 사역이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방식이다.

둘 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 다 전임 기독교 사역이 될 수 있다. 두 사역 간의 유일한 차이는 그 사역이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른 부르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존 스토틀 -

그러므로 이를 모자이크 선교에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공부, 설교, 방문 또는 노방 선교하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함께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되는 것, 렌트를 구해 주고 집 또는 교회를 관리해 주는 것, 아이를 돌봐주는 것, 언어나 요리를 가르치는 것,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것, 수업료 지원하는 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6:3) 하는 소중한 선교 사역이다.

3. 불신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먼저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시편 67:1) 아론의 축복(민수기 6:24-26)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미소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열방이 스스로 보지 않을까?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 활동,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않을까?...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도 작용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가?” 라고 신랄하게 묻는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를 통해 그분께로 끌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 존 스토틀 -

아내가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면 남편은 당연히 그 옷이 정말 멋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옷을 입은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멋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멋있다는 말이며 우리는 그 멋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것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끄는 것은 두 번째 것 (우리의 삶)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 HERE & NOW 선교

1. 모자이크 선교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들을 불러 우리 이웃이 되게 하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 타 문화권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일상의 삶 속에 포함하는 것이다.
- 타 문화권 이웃들의 필요를 동역자와 함께 지속해서 돌보는 것이다.
- 미전도 종족 성도들을 우리의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 모자이크 선교의 목표

교회 개척

- 타 문화권 미전도 종족 현황을 조사한다. (1과 Resources 참조)
- 교회 개척할 종족을 정하고 신실한 성도, 지도자를 찾아 관계를 맺는다
- 미전도 종족 안에 그들의 언어, 문화 안에서 교회 개척 비전을 나눈다.
- 교회 개척할 종족과 동역할 후원 교회를 서로 networking한다.
- 개척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교육 훈련

- ALPHA 훈련
- 제자 훈련
- 리더십 훈련 - 성인, 청소년
- 개척 교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양육 훈련
- 모자이크 선교 세미나, 포럼



모자이크 선교 지도자 수양회를 마치고

선교사 파송

- 개척 교회 시작 초기부터 아래 선교 비전을 공유토록 한다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를 파송한다
- 그들 모국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다.
- 해외 선교를 위해 타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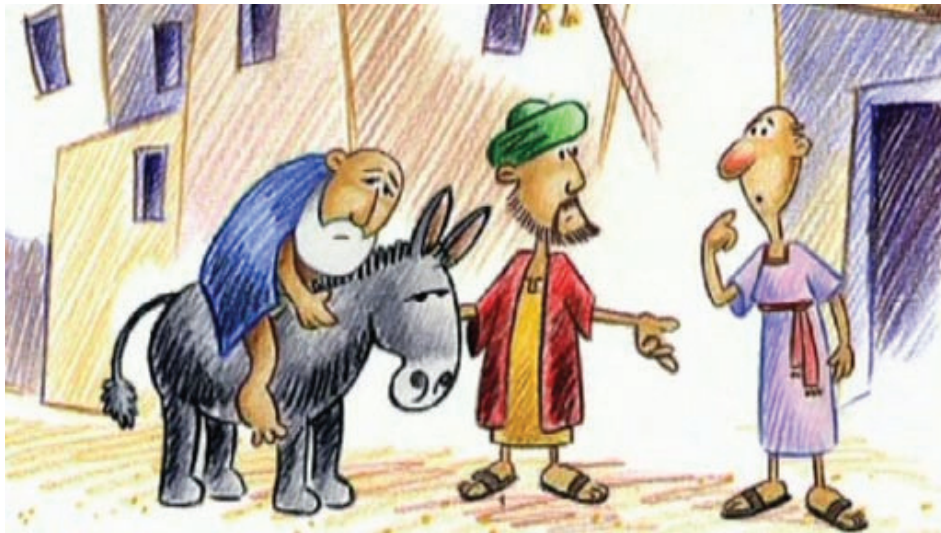
3.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특징

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 매일 생활 속에서 사역한다: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적 사역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
- 전문성이 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섬기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속 타 문화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한다: 개인, 한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상호 보완하여 선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비유 : 롬12:1~8, 고전 12:1~31, 엡4:1~12

4. 모자이크 선교 대상



모자이크 선교는 우리가 영육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25-37

‘율법 교사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다.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신다.

26절: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그렇듯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정답을 말한다: 교리에 강한 모습

27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5)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18) 하였나이다

교리에 강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다시 묻는다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이란 같은
인종, 같은 계층, 수입, 심지어 신학적 입장까지 같은
사람 즉 ‘나 또는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 형상을 닮은
이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30-37에서
익명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다. 이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강조하신다. 즉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34)는 구약의 원리를
가르치신다.



이 비유에서 익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우월감에 가득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한 유대인의 인종, 문화적 우월감에 도전하는 인물이 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이 필요한 길가에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36절에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고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푸자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결론 (37절)을 내리신다.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우리도 그들이 나의 이웃인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에 고난 당하고 도움을 필요로하는 타 문화권 사람들의 이웃인가 자문해야 한다.

사도행전 11:19-21: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5. 어떻게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로 동역할 수 있을까?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자이크 선교에 참여한다.
- 타 문화권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한다.
- 미전도 종족에 대해 농부, 부모의 마음을 품고 선교 사역에 동역한다.
-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 :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에 관심을 함께 갖는다.
 -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 개척, 교육 훈련 등에서 동역한다.
 - 간증을 준비하자. (3~5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등)
 - 사회 복지: 소외된 자의 육적 필요 (재정, 질병, 가정 문제 등)를 돕는다.
- 그들의 필요에 맞춰 자기 은사, 재능, 열정에 따라 섬긴다.
 - 필요에 맞춰 은사와 열정으로 어린이 학교, 시니어 학교, ESL, 축구, 찬양 사역 등으로 섬긴다.
 - 직장 / 일터 (교사, 음악, 운동, 그림, 목공, 변호사, 회계사, 상담가, 의사...)에서 하는 재능, 은사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문화권의 소외된 자를 위해 ‘모자이크 사랑 나눔’으로 섬길 수 있다.
(연간 전 세계 성도들 수입 34조 불의 0.1%만 해외 선교로 지출)
-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모자이크 장학금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 작은 일일지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하듯 하자.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께 하듯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한다. 이처럼 주께 하듯 할 때 함께 차를 마시든, ride로 섬기든, 가르치든, 재정으로 돕든, 기도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 작은 것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 Mosaic Cultural Ministry -
- 깨닫고 아는 것 만큼 행하자.
많이 알아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더 낫다.
- Spiritual Friend가 되자.
주변 (이웃, 직장, 고객 등)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 친구 또는 부모가 되자.
- Mosaic Cultural Ministry를 위한 동원 사역
 - 교회와 친구들에게 모자이크 선교 비전을 나누며 사역자를 동원하자.
 - 초대 교회에서 배우자 (사도행전 2:43-47):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와 같은 사역자를 동원하자.
 - 조직의 사역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사역팀을 세우자.
 - 99% 평신도를 깨워 타 문화권 사역자로 동원하자.
 - 영향력과 잠재력이 큰 여성들을 사역자로 동원하자



모자이크 선교 동역자를 위한 기도

6. 모자이크 선교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 상식

- 타 문화권 소수 민족의 필요 (Need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Family doctor, Walk-in Clinic, OHIP 신청, Child Benefits,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곳을 알아둔다.
- 난민, 이민 등에 법적 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둔다.
- 어디에 Welfare Office가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두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가고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준다.
- Clothing and Food Bank의 위치와 근무 시간 등을 알아둔다.
- 언제 어디서 Job Fairs가 있는지 알아두고 job 신청을 도와준다.
- 영어를 못 해도 할 수 있는 Job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ESL programs에 대한 정보와 자체 ESL programs 을 준비한다.
- (Bilingual) Child care services와 (Bilingual) Medical services and social services가 가능한 곳을 알아두고 그들과 동행하여 도움을 제공하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한다.
- 저소득자를 위한 apt. 임대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두고 기다리는 동안에 'follow up' 하는 것을 도와준다.
- Management Office에서 소수 민족을 차별 없이 받아주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7.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실질적 필요

- 학교, 숙소 (정부 아파트 등),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임시로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 (교회 차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예: Adam House, Matthew House
- 그들의 식품을 살 곳과 필요한 물품이나 가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또는 교회 성도들의 사용 가능한 물품을 donation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Shopping하는 요령 - 그들의 식품을 살 수 있는 곳, Sale, 쿠폰 사용, garage sale 등 - 과 식품점, Drug Store, Dollar Store, Outlet, Mall 등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 나라에 따라 경찰과 보안 요원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 TTC, Parking Meter,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 사용법을 알려 준다.
- 응급실, family doctor, 119, TV, 인터넷, Toll free,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 준다.
- 은행 계좌 개설, 전화, 전기 시설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 그들과 대화 (조국 생각, 필요, 두려움 등에 대해)를 많이 하여 친밀감을 증진 시킨다.
- 학교에서 Paper를 제출할 때 문법, 작성 요령 등에서 그들을 도와준다.
- 친구 (특히 Christian 친구)들을 소개한다.
- 친구의 모임, 교회 행사, 결혼식, 세례식, 영화 관람, 가족의 Picnic 등에 초청한다.
-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재정을 모은다.
- 교회, 의사, 치과, social services, 공항까지 Ride 해 준다.
-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선생님과의 interview, 친구 사귀기, 학교 복장, 자녀들의 TV, Computer 사용 등...

8. 선교 대상인 타 문화권 소수 민족과 함께 하는 사역

- 단기 선교 Trainer / Facilitator로 타 문화권 소수 민족 교회 / 지도자를 초청한다.
- 단기 선교 다녀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선교적 삶을 살도록 타 문화권 소수 민족 교회와 동역한다.
- 안식년 등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그들을 섬기며 교제하도록 한다.
- 소수 민족 선교 대상 중에서 어려운 가족, 교회를 돕는다.
- 그들과 음식 나누기, 영화 감상, 야유회, 운동 경기 등을 함께 한다.
- 타 문화권 종족들의 행사에 참여하고 그들을 교회나 우리의 모임에 초청한다.
- 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관계가 친밀해져 갈 때 노인, 장애인, homeless people, 새 이민자를 위한 섬김 등을 함께 한다.
- 소수 민족 사역자를 우리 모임에 초청하여 설교, 또는 간증 등을 부탁한다.
- 타 문화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
- 타 문화권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들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한다.

9.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

- 미디어 (IT/컴퓨터), ESL, 스포츠, 의료 선교, 찬양, 공휴일 사역, 건축, 수리 보수, 전기, 수도 배수, 목공…)
- 학교 (대학, 초, 중, 고등) 친구를 통한 Campus 선교
- 타 문화권 성인, 청소년 지도자 양육
- 타 문화권 가정 전도, Community 전도에서 함께 동역
- 종족별 집중해 사는 거주지, community, 상가, 음식점 등을 방문 기도
-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교제하며 그들의 언어 배우기
- Christmas, Easter, Thanksgiving Day, Picnic, 구정 등에 타 문화권 소수 민족 이웃을 초청하여 교제하기 - 교회에서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 교회, 성도, 신학생, 사역자, 어려운 소수 민족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기
- 타 문화권 소수민족 연합 전도 집회, 문화축제, 피크닉,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 타 문화권 어린이 캠프 및 청소년 Retreat 지원하기
- 타 문화권 교회들과 함께 연합 예배, 전도 집회, 문화 축제 개최하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선교도 여전히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섬김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자리와 선교에서 수난이 차지하는 자리는 오늘날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음 전도 또는 선교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단 하나의 비밀은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려는 마음이다. 그것은 인기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고 (인기 없는 성경의 복음을 충실히 전파함으로써), 또는 자존심에 대한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적, 국가적 편견에 대한 (다른 문화에 동일시됨으로써) 죽음일 수 있다. 하지만 열방에 빛을 가져오려면 종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며 씨는 여러 배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 존 스토틀 -

해외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고난이 있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와 우리 이웃으로 살게 하시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모자이크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존 스토틀가 지적하고 있듯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진리 즉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 (수난과 고난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7:9: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ی 궁극적이시기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드릴 때 선교는 더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 존 파이퍼-



CMCA 동역 교회들의 연합 예배

삶에서 적용하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한가지라도 오늘 실행하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던 수 많은 종족들을 불러와 나의 이웃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모자이크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자이크 선교 사역 관련 정보

CMCA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 CMCA Web Site: www.cmcaallnations.org
- CMCA Facebook
- E-Mail Address: cmca.allnations@gmail.com
- Mobile: 416-886-9101
- Office: 416-497-2424

사역 관련 참고 Web site (1과 Resources참고)

- Statistics Canada
- Joshua Project - <https://joshuaproject.net>
- TIM Centre - www.ureachtoronto.com
- Open Doors - <http://www.opendoorsca.org>

CMCA Video



2015 CMCA 다민족 연합 예배 편집 영상 (3분)

<https://youtu.be/R7YS9U0hOqA>



2015 CMCA 다민족 문화 축제 영상 (3분)

<https://youtu.be/a6VB5VX1Gel>